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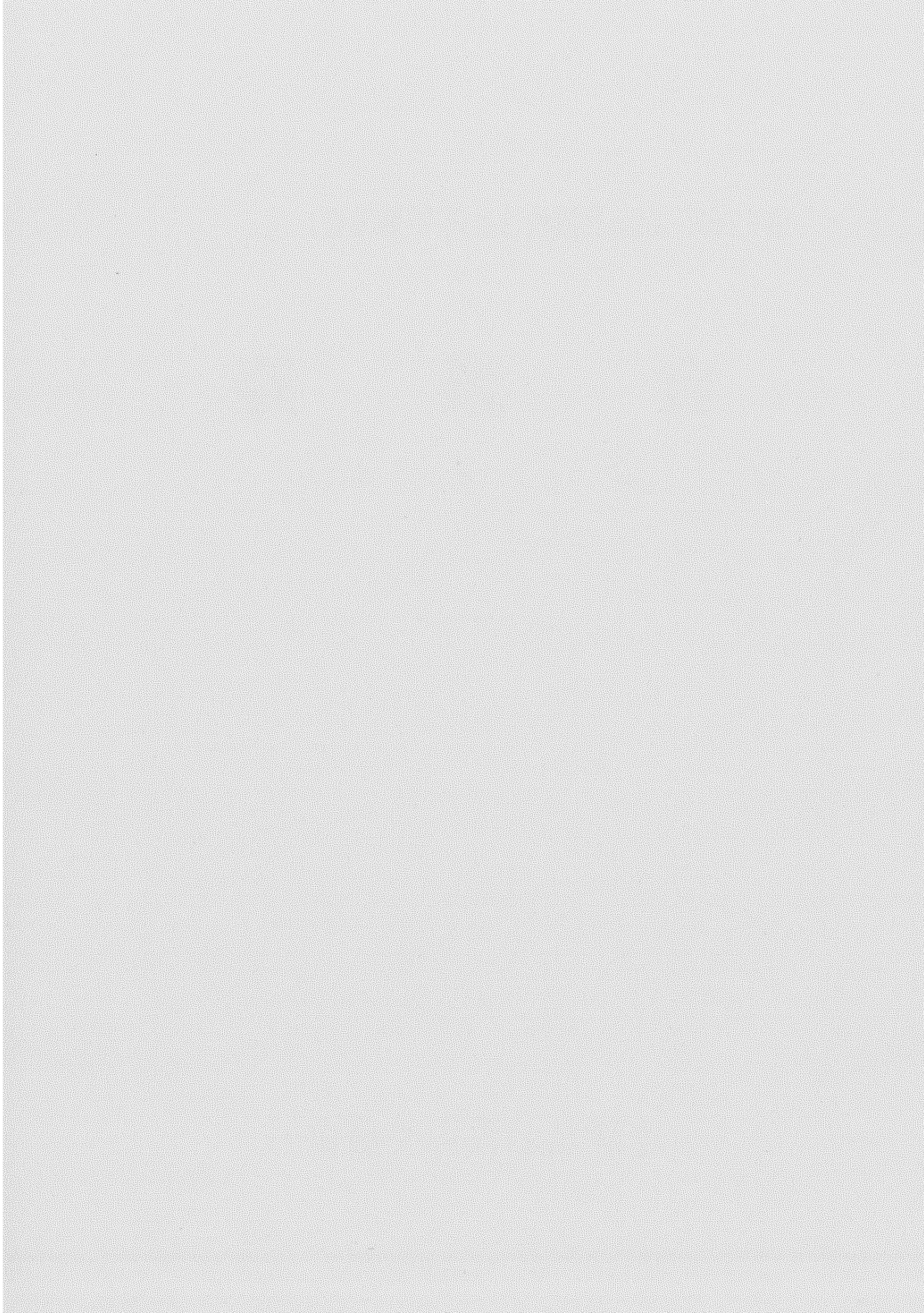
第12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1.5.28.~5.3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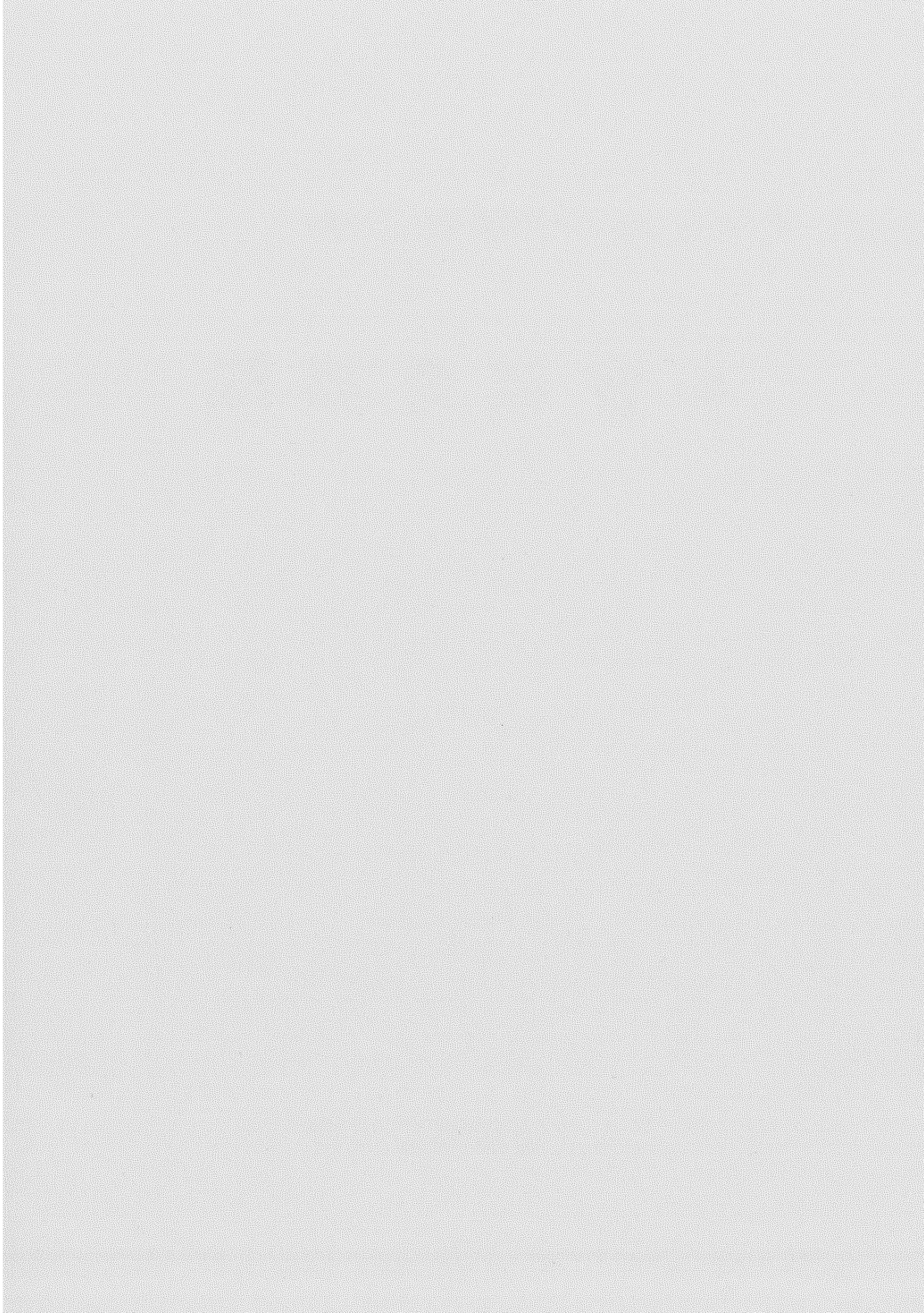


第12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 I. 개회식 .....191
- II.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93
- III.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99
- IV. 부 록
  - 1. 의사일정 ..... 205
  -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07
  -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9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14시 00분

開會式順(第12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4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14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14시 02분

## 議事日程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충원 위원님께서 출타중이신데 지금 고속도로 선상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조금 본회의장에 늦게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교육감님은 몸이 불편해서

서 오늘 불참을 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 의사과장 이상기



[제128회-제1차 본회의]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5월 1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 제2001-5호로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동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신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은 동일자로 주한 일본대사와 유관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에는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09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충원위원 본회의장 들어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00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충북교육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122억 2,395만원에서 723억 4,272만원이 증액된 8,845억 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220억 6,939만원, 도세전입금, 전년도 정산분 및 비법정전입금으로 13억 1,741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과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87억 4,992만원,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년체육대회 훈련경비로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활동비,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427억 2,552만원, 공공도서관, 문화 및 평생교육활동비로 7억 5,241만원, 급여 및 복지후생비로 183억 4,652만원,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로 88억 3,749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6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중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시설비에 117억 1,316만원을 계상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0 내지 50%, 설계비, 부지정지비와 시설비 20% 111억 8,02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2회 추경에서 사업비 일부가 감액 조정되었던 충청북도 서해수련원 건립비 부족분 47억 3,29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충북공고 및 영동고 기숙사 건립비 22억 6,600만원과 동명초등학교 외 6개교의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4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56억 2,539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급중설에 따른 교단 선진화 사업비 5억 820만원, 학교 정보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9억 2,625만원,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지원비로 1억 3,302만원, 학교 정보화교육 활성화

[제128회-제1차 본회의]

를 위하여 ICT 활용 미래형 모델 학교로 34개교를 지정하고 운영비로 15억원, ICT 활용을 위한 3개 지역교육청, 시범단지운영비로 3억원, 각급 학교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비로 4억 5,000만원, 고등학교에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사업 등 학교 전산망 구축비로 12억 700만원, 그외에 각급 학교 화상학습시스템 구축 등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억 92만원입니다.

다음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와 학생 중식 지원비로 13억 8,558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학력고사 실시 및 중학교 2학년 수준별 학습지도자료 개발 등 교육활동지원에 6억 9,485만원, 직업교육확충 및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지원비로 1억 3,976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등 학교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4억 600만원, 학교기본운영경비 증액과 경제사정곤란자녀 학비지원금 등으로 33억 3,797만원,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등 평생교육지원에 6억 6,800만원, 그외에 교원단체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 600만원과 교원복지 차원에서 대출이자 차액보전을 위하여 1,0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58억 5,504만원과 연금부담금 보전금 124억 3,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2)  
(끝에 실음)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첨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첨 2)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첨 3)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4시 18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소위



원회구성예의를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예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5월 30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송진하 부의장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지난 날을 모두 잊고 충청북도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화합하는 교육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그리고 동료 교육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코자 합니다.

먼저, 2000년 9월 5일 본인이 의장에 취임한 후 첫 회의를 집행한 탓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을 동료위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히 조일환 위원님께는 지나친 언사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8일 음성소이초 학부모 등의 집단 민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또한 동료위원님들께 사과드리며, 특히 조일환 위원님께서 신변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일 경주세미나 후 오찬장소에서는 본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여러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조일환 위원님께서서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일환 위원님과 본인이 이의없이 받아 들이고,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지난 일들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제128회-제1차 본회의]

---

않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교육위원회 발 다.  
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으니 많은 협조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부탁드립니다.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3분 산회)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응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2)

※ 별 책 부 록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31일 (목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의장 손만재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전국소년체전 출장 관계로, 시설과장은 집안에 상사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조일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조일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조일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의 위원이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 회부됨에 따라서 3일간 3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진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세출예산편성의 합목적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서 면밀한 심사를 하였던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122억 2,394만 7,000원보다 723억 4,272만원이 증액된 8,845억 6,6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 220억 6,939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3억 1,741만 3,000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487억 4,991만 7,000원, 다음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

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427억 2,551만 6,000원, 문화및평생교육에 7억 5,240만 7,000원, 급여복지에 183억 4,652만 3,000원, 교육행정에 88억 3,749만 5,000원, 기타경비에 16억 8,0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억 8,136만원으로 단재교육연수원 영어마을합숙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 계상된 2,2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주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급식소 냉방기 구입비로 초등학교 43대, 1억 2,900만원, 중학교 10대 3,000만원, 계 53대,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리고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서 동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의 단계적 확충, 학교신설 및 체육활동시

설, 그리고 중학교 급식 확대, 공무원 처우 개선 등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되, 지역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에 더욱 유의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청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있어서는 사학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공립학교보다 열악한 실정인바,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중요 건축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년도,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 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히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설예정학교 설립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시설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였던바, 동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차후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삭감된 재원은 향후 예산편성시 교

육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재투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의견에 따라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는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삭감이유 및 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제128회-제2차 본회의]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전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각각 8,845억 6,666만 7,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조일환.

○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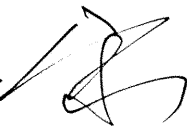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3)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6.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송 진 하 

위 원 김 광 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28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5. 28. ~ 5. 31.( 4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5月 28日(月) (14:0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 第1次 本會議 ] 1. 제12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1. 5. 28. ~ 5. 31.( 4 일간)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5月 29日 ~ 5月 30日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5月 31日(木) (11:00)	[ 第2次 本會議 ]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 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閉 會  <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 協議會	





(별첨 2)

의안번호	제 228-1 호
의 결	2001. 5. .
년 월 일	(제 228 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5. 9.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28-1
----------	-------

제출년월일 : 2001. 5. 19.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122억 2,394만 7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723억 4,272만원이 증액된 8,845억 6,666만 7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20억 6,939만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3억 1,741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87억 4,991만 7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2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27억 2,551만 6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7억 5,240만 7천원, 급여·복지 183억 4,652만 3천원, 교육행정 88억 3,749만 5천원, 기타 경비 16억 8,0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01. 5.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 목 차

1. 심사경과 .....	211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211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211
4. 토론 주요내용 .....	211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212
6. 수정안의 주요내용 .....	216
7. 심사결과 .....	216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216
9. 기타 필요한 사항 .....	216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5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일자 : 2001년 5월 28일(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회부일자 : 2001년 5월 28일
  - 제1차 소위원회(2001년 5월 28일)
  - 제2차 소위원회(2001년 5월 29일)
  - 제3차 소위원회(2001년 5월 30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12,223,947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72,342,720천원이 증액된 884,566,667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2,069,390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317,41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8,749,917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206,000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2,725,516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752,407천원, 급여·복지 18,346,523천원, 교육행정 8,837,495천원, 기타경비로 1,680,779천원을 계상하였음.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812,223,947천원보다 72,342,720천원이 증가한 884,566,667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수정예산액	당초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884,566,667	812,223,947	72,342,720	8.9%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2,069,390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317,41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8,749,917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206,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자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재정교부금	21,589,957	29.8
	국고지원금	479,433	0.7
	소 계	22,069,390	30.5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787,774	1.1
	비법정전입금	529,639	0.7
	소 계	1,317,413	1.8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재산수입	980,839	1.4
	사용료및수수료	6,925	0.0
	잡수입	375,879	0.5
	이월금	47,386,274	65.5
	소 계	48,749,917	67.4
주민(기관등)부담수입	주민(기관등)부담수입	206,000	0.3
	소 계	206,000	0.3
합	계	72,342,720	100.0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2,725,516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752,407천원, 급여·복지 18,346,523천원, 교육행정 8,837,495천원, 기타경비로 1,680,77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학교교육	유 치 원	417,493	0.6
	초등학교	15,392,606	21.3
	중 학 교	12,588,602	17.4
	고등학교	14,147,949	19.5
	특수학교	137,898	0.2
	기타학교	40,968	0.0
	소 계	42,725,516	59.1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752,407	1.0
급여 및 복지	급 여	5,896,437	8.2
	복지·후생	12,450,086	17.2
	소 계	18,346,523	25.4
교육행정	교 육 청	1,745,521	2.4
	지역교육청	1,147,857	1.6
	교육지원기관	5,944,117	8.2
	소 계	8,837,495	12.2
기타경비	제지출금	67,370	0.1
	예 비 비	1,613,409	2.2
	소 계	1,680,779	2.3
합	계	72,342,720	100.0

□ 주요사업별예산편성 내역

○ 시설비	35,840,419천원
.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2,982,759천원
. 교육환경개선 시설	7,938,821천원
. 일반시설	791,575천원
. 학교신설	11,180,293천원
. 기타시설	12,946,971천원
○ 교육정보화 사업	5,625,391천원
. 교단선진화 사업	508,200천원
. 전산보조원 임용	926,250천원
.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133,020천원
. ICT활용미래형모델학교운영	1,500,000천원
. ICT활용 시범단지운영	300,000천원
. S/W 개발 및 보급	450,000천원
. 학교전산망 구축	1,207,000천원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600,921천원
○ 학교급식 지원	1,385,575천원
. 중학교 급식확대	740,839천원
. 급식학교 지원	112,800천원
. 학생중식비 지원	531,936천원
○ 교육활동지원	694,851천원
. 학업성취도 평가	407,087천원
. 교육자료개발·보급	224,664천원
. 연구시범학교 운영	63,100천원
○ 실업교육 지원	139,756천원
. 직업교육 확충	60,912천원
. 기타 실업고 지원	78,844천원
○ 학교체육 진흥	406,000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318,500천원
. 학교체육활동 지원	87,500천원
○ 각급학교운영비 지원	3,337,966천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2,559,523천원
. 자녀학비 지원	695,709천원
. 사학경영우수기관지원	50,000천원
. 학교 통폐합 지원	32,734천원
○ 평생교육 지원	668,000천원
. 특성화 도서관 운영	15,000천원

·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구축	378,000천원
·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275,000천원
○ 교직원 사기진작	116,000천원
· 교원단체활동 지원	106,000천원
· 교원복지 대여 이차보전	10,000천원
○ 복지·후생	18,291,208천원
· 공무원 봉급조정수당(35%)	5,855,037천원
· 연금부담금(사용자부담금4.5%)	12,436,171천원
○ 기타	34,702천원
· 교육행정전산망구축(학생종합야영장)	34,702천원

나. 삭감내역

삭감액 : 181,360,000

삭감내역 및 사유

단재교육연수원 영어마을합숙비 22,360천원

단재교육연수원 영어마을합숙비로 27,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단가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2,360천원을 감액하였음.

청주교육청 초·중학교 급식소냉방기 구입비 159,000천원

청주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급식소에 냉방기 구입비로 초등학교 43대 129,000천원, 중학교 10대 30,000천원 계 53대 159,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비 전액을 감액 하였음.

다. 종합의견

금번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2000.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학교신설 및 체육활동 시설, 중학교 급식확대,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공무원처우개선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으나, 향후

- 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간 예산 배분에 있어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사립학교 시설이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 아울러 학교의 중요건축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년도, 노후도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를 작성하여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천 장락초등학교(가칭) 설립 추진에 있어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시설사업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였는 바,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 차후 이와 유사사업에 대하여도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할 것임.

##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5. 31.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고려되는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교육행정(장), 교육지원기관(관), 지원기관운영(항), 교원연수지원(세항)
  - 영어마을 합숙비 27,000천원중 22,360천원을 감액함.
- 학교교육(장), 초등학교(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항), 학교급식운영
  - 초등학교 급식소 냉방기 129,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 학교교육(장), 중학교(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항), 학교급식운영
  - 중학교 급식소 냉방기 30,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 예비비 26,329,947천원을 26,511,307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의결(참석 6명, 찬성 6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1년 5월 31일

제 안 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 1. 제안이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와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학교교육(장), 초등학교(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항), 학교급식운영(세항)
  - 초등학교 급식소냉방기 구입비 129,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 나. 학교교육(장), 중학교(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항), 학교급식운영(세항)
  - 중학교 급식소냉방기 구입비 30,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 다. 교육행정(장), 교육지원기관(관), 지원기관운영(항), 교원연수지원(세항)
  - 영어마을합숙비 27,000천원중 22,360천원을 감액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장)학교교육 관)초등학교 향)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세향)학교급식운영  
초등학교 급식소냉방기 구입비 129,000천원을 전액 감액한다.

장)학교교육 관)중등학교 향)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세향)학교급식운영  
중학교 급식소냉방기 구입비 30,000천원을 전액 감액한다.

장)교육행정 관)교육지원기관 향)지원기관운영 세향)교원연수지원  
영어마을합숙비 27,000천원을 22,360천원 감액한 4,640천원으로 한다.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향)예비비 세향)예비비  
예비비 26,329,947천원을 181,360천원 증액한 26,511,307천원으로 한다.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과 목		교육감제출 예산액	교육위원회 의결		예산액	수 정 내 용
			감 액	증 액		
1. 학교교육		59,161,936	159,000		59,002,936	
	2. 초등학교	36,332,145	129,000		36,203,145	
	3.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1,370,992	129,000		1,241,992	
	05. 학교급식 운영	129,500	129,000		500	○ 급식소냉방기           △129,000 (129,000 → 0)
3. 중학교		22,249,901	30,000		22,219,901	
	3.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1,932,806	30,000		1,902,806	
	05. 학교급식 운영	1,923,330	30,000		1,893,330	○ 급식소냉방기           △30,000 (30,000 → 0)
4. 교육행정		903,978	22,360		881,618	
	5. 교육지원기관	903,978	22,360		881,618	
	1. 지원기관운영	861,277	22,360		838,917	
	01. 교원연수 지원	458,568	22,360		436,208	○ 영어마을합숙           △22,360 (27,000 → 4,640)
5. 기타경비		34,840,397		181,360	35,021,757	
	3. 예비비	26,329,947		181,360	26,511,307	
	1. 예비비	26,329,947		181,360	26,511,307	
	01. 예비비	26,329,947		181,360	26,511,307	○ 예비비                   181,360 (26,329,947 → 26,511,307)
합 계		884,566,667	181,360	181,360	884,566,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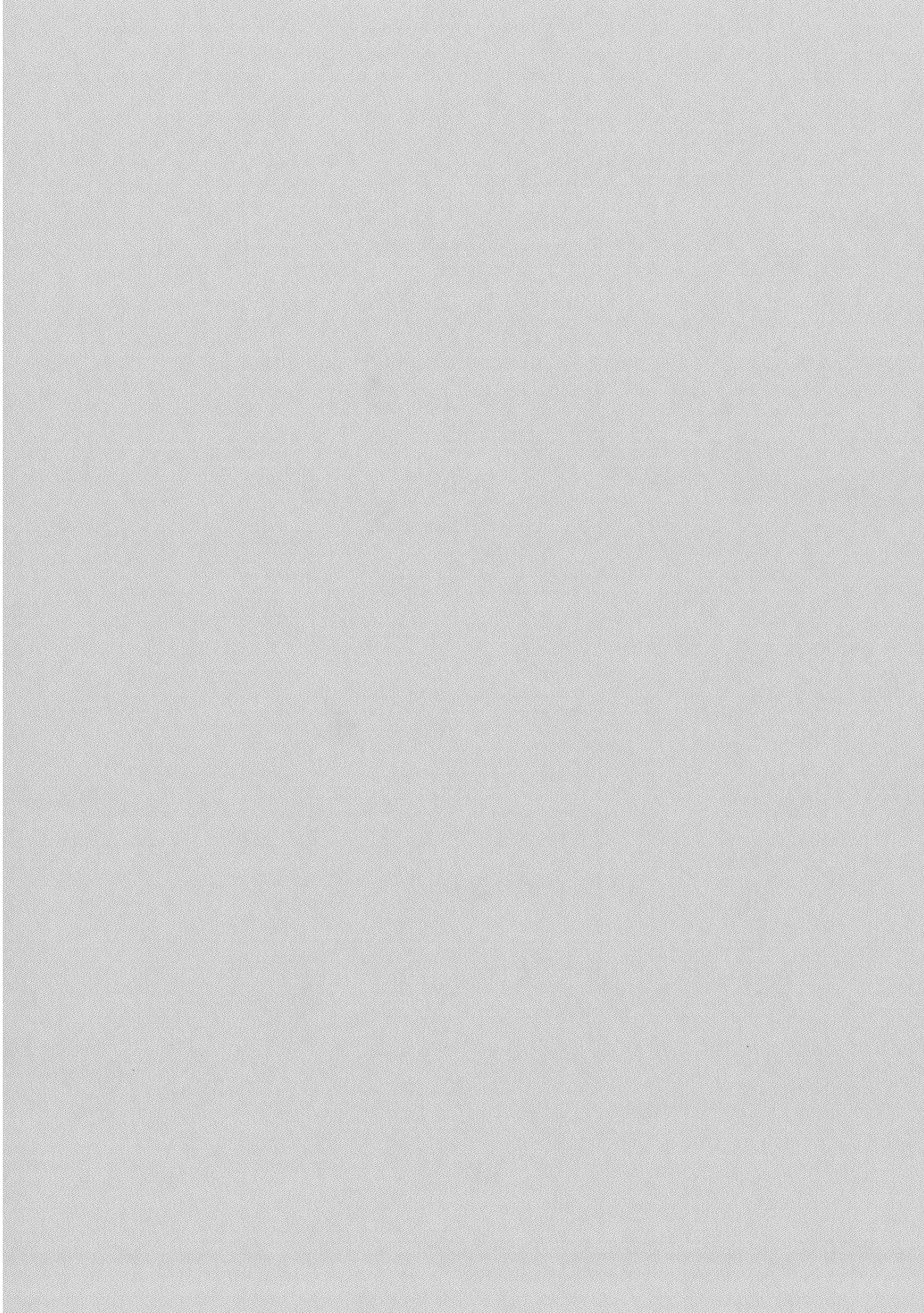


第12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 I.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225
- II.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233
- III.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27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 .....331
  - 2. 서면답변서 .....333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14시 25분

## 議事日程 (제128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25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 26분)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추천해 볼까요?

저 조일환 전 의장님이 의장하시는 바람에 이런 소위원회 위원장을 전혀 안하셨었는데 이제 좀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 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감사한 말씀인데, 제가 정말 예산을 정말 모릅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사회만 보는 거니까, 사회.

● 조일환 위원

우리 김광수 위원님을 또 시키고 싶은데, 몇번 안하셔서 저는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 김광수 위원

여기 보면, 조일환 위원님이 사양하신다면 이충원 위원님이 하셔야 되겠어.

● 이충원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아까 결정된 것 같은데 이번만은 빼 주세요.

● 김광수 위원

아니 아까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 같았는데...

● 이충원 위원

이번만은 좀 빼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아니 전 의장님들도 좀 하세요. 조 의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김광수 의장님도 나중에 하시고...

● 조일환 위원

앞으로 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만은...

● 이상일 위원

지금 두 분들이 한번도 안하셨어요,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 조일환 위원

김광수 위원님도 위원장 안하셨잖아요.

● 이상일 위원

지금 보면 김광수 전임 의장님께서 두 번, 송진하 부의장님 세 번, 이기수 위원님 두 번, 저 두 번, 이충원 위원님 하고 조일환 전 의장님이 한 번도 안하셨어요.

● 이기수 위원

두 분 중에서 하세요.

● 이충원 위원

저는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 이기수 위원

그럼 하시죠.

손뼉치고 말씀시다 그러면.

다 우리가 뭐 모든 분들이 다 하시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의의가 없으므로,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일환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예산에는 관심도 없고 또 상식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안하고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부름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이번에 추경이,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열심히 심의를 하셨는데 또 도의회에 가서 삭감되고, 수정도 하고, 또 삽입도 하고 이러한 사태였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충북교육을 걱정하시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견

(14시 30분)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번 소위원회 간사님을 선출을 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지금 한 것처럼 구두로 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을 해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

● 김광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 많이 하였고 하니 간사는 제가 자원할까 싶은데...

(위원 모두 “좋습니다.”하고 말함)

(박수소리)

그럼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죠.

● 김광수 위원

간사는 인사 안해도 될텐데요.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예산심의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김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어서 든든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4시 32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한번 제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예산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더니 내일 하루 정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시면은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에, 사실 현장을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내일 심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간단히 모레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날짜로 잡고, 그래서 모레 글패 31일날 저희가 본회의가 있는데 한 10시쯤 돼서 소위원회 의결을 하고 11시쯤 바로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좀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좋으신 생각있으면 말씀하세요.

● 간사 김광수

그것이 좀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기가 어렵죠. 10시쯤 소위원회 의결을 하면 그때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심사보고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려면 30일날 예산심사를 마치고 늦더라도 소위원회 의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그냥 뒀다가 31일날 본회의 하는 날 하려면 본회의를 오후로 하든지...

● 조일환 위원

참 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청에서는 10시쯤 하면 한 5분이면 심의·의결은 될 테니까, 11시에 하는데 집행청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사보고서 만들기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떻습니까?

● 의사담당 김왕년

제가 먼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요일 하고 수요일날 심사를 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이 나가지고요, 31일날 심사보고를 하도록 본회의 의사일정에 그렇게 잡혀 있고요, 또 한가지 말씀은 의사국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우리 의사국에서.

그러니까 일정은, 우리가 심의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현장 시찰도 심의니까 거기는 구애될 게 없습니다만은, 다만, 심사보고서 쓰는 게 시간이 모호하다, 그런 얘기죠, 사무국에 그렇습니까?

● 의사담당 김왕년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소위원회 활동을 이틀간으로 해 가지고 31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 의과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31일날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요, 의결이. 아까 본회의에서 그렇게 가결이...

● 위원장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그날 내일 모레, 내일 대충 심의하고 소위원회도 안되겠습니까?

● 간사 김광수

30일날 심의를 늦게까지 끝내고 의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1일날 한다면은 본회의를 오후로 늦춰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30일날이 2시에 소년체전 발대식...

● 위원장 조일환

30일요?

● 이기수 위원

30일날, 30일날 그렇고, 또 이제 최종스럽지만은 저희들은 학교에 아직 있어갖고 일정같은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좀 늦게까지라도 해서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는데...

● 위원장 조일환

가만 있어 봐요. 소년체전이 며칠날여?

● 의사과장 이상기

30일날 오후 2시에 결단식...

● 위원장 조일환

30일날 오후 2시.

● 간사 김광수

그건 상관 없지, 우리하고 상관 없는 거지.

● 의사과장 이상기

저희들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 간사 김광수

결단식하는 데야 상관 있어요?

30일날 우리 예산심의가 잡혀 있는데.

● 위원장 조일환

지금까지 결단식 하는데 우리가 참석을 했나?

● 이기수 위원

지금까지는 해 왔죠, 해마다 해 왔죠.

● 간사 김광수

아니 해 왔는데 예산심의 기간인데 그 결단식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조일환

부득이 하면 안할 수도 있고, 시간을 내서 편리를 봐서 서로 참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 이기수 위원

일정을 한번 잡아보세요.

● 위원장 조일환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 소년체전은 우리가 우선 제외하고 그렇게 잡아보시고, 뭐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 과장들이나 국·과장님들이나 답변을 안하면 상관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 답변을 해야 된다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아니 답변은 내일...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다면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내일 하는 거니까 모레는 설령 현장방문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니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다면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뭐 지금 그렇게, 그럼 내일 하려면 늦더라도 소위원회를 의결을 끝내 달라.



● 이기수 위원

아니 하고서도 현장방문이 멀리 아니면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고...

● 위원장 조일환

갓다 와서 두드리셔야죠.

● 간사 김광수

내일은 안돼요

● 위원장 조일환

내일은 안되죠?

하여튼 어차피 모레 해야 될 거예요, 의결이.

● 간사 김광수

모레 하든지 해야지 내일은 안될 거예요.

● 이상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늦도록 심의를 하고, 30일날 오전에 현장을 방문할 때가 있으면 하고, 오후에 소위원회 의결을 하고 그 의결사항을 31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렇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그게 순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끝나고 현장에 간다는 것도 우습고.

● 이기수 위원

예, 그러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의결을 하고서, 매년 참석하던 소년체전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 위원장 조일환

되도록 시간을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해보죠.

● 이기수 위원

예,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몇시부터 내일은 하죠, 10시부터입니까?

● 이기수 위원

10시 반으로 돼 있는데요.

● 간사 김광수

10시부터 해야지...

● 이충원 위원

10시부터 어때요, 10시.

● 위원장 조일환

10시부터 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내일 일정이.

● 간사 김광수

10시 반에 해야 할 그럴 사정이 있어요?

● 이기수 위원

예

● 간사 김광수

그렇게 하지 그럼.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10시 반쯤으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고, 내일 질의하시는 순서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의사일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내일은 심의를 각 사업별 예산별 예산심의를 하고, 모레는 한 10시쯤

모일까요?

● 이기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조일환

예, 10시쯤 모이셔서 현장방문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오후에 들어와서 소위원회 의결을 하고, 이의 없으시죠?

● 간사 김광수

내일 예산심의회가 다 안끝나면 모레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 이기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조일환

안끝나면 모레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일정은 뭐 현장방문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일은 10시 30분, 그리고 모레는 10시에 소위원회를...

● 이충원 위원

그러면 본회의 의결은 며칠날 할 거요?

● 위원장 조일환

31일날 하죠, 11시에.

● 간사 김광수

그러시면요, 30일날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한다면 오늘 우리 위원장하고 집행청하고 상의하셔서 내일 증으로 어디를 현장방문을 할 것인가, 내일 어디를 현장방문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모레를 가더라도.

● 위원장 조일환

그래서 저는 그게 집행청 의견보다도 우

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고,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안건을 보실 때에 내일 토론이 충분히 되면은 내일 어디 대상기관이 필요하면 하시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여기서 해도 되고, 저는 그런 쪽으로 제안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면 내일은 10시 30분, 모레는 10시, 그 다음날 본회의 11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29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2분 산회)

[제128회-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김광수,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29일 (화요일) 10시 32분

議事日程 (제12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2분 개회)

### ● 위원장 조일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진행은 일정한 격식을 떠나서 저희 충북교육의 추경을 그야말로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변은 국장님들이 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또는 실무 계장님의 설명 요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3분)

### ● 위원장 조일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자료를 주실 때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같이 못 주셨어요, 준비가 부족했던가 보죠.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설명자료는 동시에 주셔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질의나 이런 게 있으면 받아서 답변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장님 우선 설명하는 것으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개요설명은 제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 위원장 조일환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하도록.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고맙습니다.

▶ 참 조 :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과장님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더 상세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

● 간사 김광수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일환

예

● 간사 김광수

개별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엇저께 신문에 보도가 된 청주기계공고 그 수의계약 문제,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조일환

그거는 국장님 답변하실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언론에 보도된 청주기계공고 급식소 내의 전기설치공사가 2,763만 9,000원짜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제 도에서 발주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학교급식소가 비좁다 그래가지고 급식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장 부분의 천장은 새것으로 대치가 되고, 기존에 있던 그 식당 천장부분은 너무 낡아가지고 같은 천장 내에서 이제 균형이 안맞으니깐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천장교체 공사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우리 도에서 해 줬습니다. 다만 이제 천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등이 전기공사가 있는데, 그 전기공사를 같이 해야만 그 공사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예산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공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월 22일날 급식소가 이제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돈을 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학교당국에서 그것을 원인행위를 미리 좀 해 놔더라면은 그런 착

오가 덜 했을텐데 원인행위가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것이 일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공사를 추진해야 공사의 기본입니다만은, 그때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착수를 해서 완료를 해 놓고, 쉽게 말하면 외상공사가 됐던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언론에 대두됐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런데 그 외상공사 하는 사례는 사실상 어디든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시켰으면은 그 학교에서도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서류준비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춰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갖춰놓도 안하고 신문에 핑 터지게 만들고 이렇게 할 게 뭐 있는 거, 그것은 지도의 문제가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학교에서 학교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좋지 못한 것으로 봤을 겁니다.

● 간사 김광수

기간도 없으면 모르지만은 기간도 충분하

게 있었는데 말이죠,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지 그래 그것을 준비를 안해 놓고서, 업자는 돈을, 공사를 다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한 것이고 말이지, 그래 그 학교측에서는 서류가 준비 안돼서 못준다고 하고 말이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못준다는 뜻은 아니고, 주는 과정에서 이제 업자하고 관계가 뭔가는 하여튼 원만히 안됐기 때문에 그게 보도자료를 업자가 뿌린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안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 간사 김광수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고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계약이 잘됐으면은 그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 이기수 위원

그리고 이제 신문에 보도되고 나니까 빨리 해결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하면 학교에서 업자를 설득을 해서 언제까지 신속히 해결할 테니까 이해해 달라는 대화로서 얘기가 돼 갖고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학교에서도 외상공사 하고 그 뒤에 행정적인 절차를 못해 놓은 것도 노출되고, 또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마냥 이렇게 비춰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거 뭐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행정실무자가 그 업자 불러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해결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줘갖고서 이해시키고 설득해 갖고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만이 될 문제지, 신문에 보도하고 문제 커지니까 돈 주는구나 말여,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한다면 우리 충북교육계가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학교가 500여 개 학교가 있으니까 무슨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학교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런데 그것을 말을 바꿔서 말을 하면말이죠, 그 업자가 말하자면 그렇게 외부에다가 말을 해서 신문보도가 된 것인데 그 업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얘기를 외부에다 했겠느냐 이겁니다.

무엇인가가 그렇지 못하게 볼 것 같으면 무슨 흑막이 있는 것같이 보여지잖아요.

● 이기수 위원

비단 기계공고 뿐만이 아니고, 충북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전기공사 뿐만 아니고 여타 문제가 있게 되면 그런 문제는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정말 말씀 안하셔도 지금 충북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1만 3천 교육가족이 합심해서 정말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관공서라는 데가 계약서도 없이 서류도 없이 공사를 먼저 외상공사라는 것은 이런 것은 이론상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서는 직무교육을 좀 하시고, 또 그러한 해당자에 의한 철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도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대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제가 위원장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게 저는 자꾸만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적법하게 다 기억을 못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심의가 끝난 겁니까? 절차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한 것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의결 이전에

중전과 같이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 이해 못하시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 질의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은, 사업계획을 숫자로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 심의에 앞서서 일일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또 사업별로 심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우리 충북교육을 이끌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제 지금 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뭐 사전에 지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일환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정을 해 놓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유재산관리 심의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절차를 다 끝난 사업이나, 아니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다만 이제 교육부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안 구한 것이 많이 있죠.

● 위원장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전에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승인을,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또 먼저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셨다니 감사하고, 좀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구두로라도 국장님이 오셔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런 계획이니 하고 서로 정말 충북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도 물품구입이 상당히 있고, 또 공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말씀하시는 건데 이 물품구입방법을 단가입찰로 계속 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이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단가입찰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조달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단가계약 하던 것은 단가계약으로 계속 가고, 조달요청 하던 것은 계속 조달요청으로 하고, 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뭐 꼭 모든 것을 100% 뭐 단가계약을 한다, 아



니면 조달요청 한다라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참석을 해 봤더니 국회의원 세 분이 충북의 단가입찰에 관한 물품구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모 교육청 세 군데의 교육청, 본청 예도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려면 철저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죽 돌아가면서 줬다, 또 국회에 보고한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모 지역의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조달청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TV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삼성 TV를 공장에서 직접 우리가 받지 않는 한 반드시 조달청을 해야 되느냐, 일반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단가입찰 담당 계를 하나 만들더라도, 만들더라도 처음 시작이 끝나 같아야 객관성이 있고 일반 물품을 납품한다면, 아, 그렇다, 하는데 예외가 있으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염려하는 것은 정말 객관성 있게 TV의 기준이 어떻게, 특수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아들이는 물품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은, 예산을 보면은 소년체전같은 예산은 이번 소년체전 예산이죠? 6억 얼마인가 그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4억 600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아, 4억요. 이번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내일 모레가 소년체전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좀 늦게 들어와...,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늦게 온 것이 아니고 한달 전에 왔어요. 저희들이 각 시·도 사체과장이나 교육감들 회의에서 진짜 소년체전에 필요한 예산이 배치가 안될 때는 소년체전 개최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은 지급해 줘야 자라나는 청소년 꿈나무들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 배부될 예산을 저희들이 알고 거기에 알아서, 장비비 같은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훈련비는 작년 12월부터 100일 작전으로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늦게 와서 집행이 늦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이게 한달 뿐이 안됐습니까, 이 예산이 확보된 지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렇죠.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이 예산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추경하면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하려고 그래. 이걸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집행을 했고말여, 소년체전 내일 모레 나가는데 장비고 훈련비고 격려비고, 이것은 왜 이제와서 심의를 받아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 위원장 조일환

잠깐 기다리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렵더라도, 추경 다섯 번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전비 이런 거 같이 정말 시기적으로 절박하고 이럴 때에는 되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 말씀은 좀 있는데 이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우리 이충원 위원님께서 조금 공적으로 용무가 있으셔서 이충원 위원님께서 먼저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충원 위원님.

● 이충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충원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수에 좀 둔합니다.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국장님, 이것좀 봐 주시죠.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맨처음에 11쪽에 총괄표가 있는데, 총괄표요 11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무려 여덟 군데가 수치가 안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수에 둔갑하다고. 11페이지 여덟 군데나 수가 지금 안맞는 것 같아요. 만일 이것이 안맞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도의회에다가 제출하면은, 나는 뭐 내용이야 이거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걱정스럽고, 어떤 면으로 보면 바로 결재하고 심의를 했느냐, 눈 밝은 사람이 그렇게 보면 어떻하나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 국가부담수입에 소계가 보시면 81.4%가 아니라 5%가 아닌가, 숫자를 금방 금방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가 잘..., 그렇죠? 그 다음에...

● 교육국장 이주원

통계상으로는 그것을 즉 더하시다 보면 그 항목별로 사사오입을 했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 개 항이. 그래서 그것을 더하면...

● 이충원 위원

아니 글썄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외 14.1%까지 나왔는데 그 밑에 그 1%, 1% 이하라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0.1% 그 이하라면 그런데 이게 수가 제가 보기에는 81.5% 같고, 그 밑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하는데도 보면은 거기에 10.4%인가 거기 보십시오. 왜 그런고 하면 요 거기 둘째 줄에 249.629 해서 제로 제로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저도 수에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봐 주세요. 10.3%하고 10.4%.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 이충원 위원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소계를 전체 금액으로 나누면 또 맞습니다. 일부 사사오입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소수점 이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데, 즉,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에 10.3%인데 계에는 10.4%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법정전입금 말고 비법정전입금 2억 4,900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안나옵니다,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제로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합계를 내서 계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0.2%가 올라가는 그런 효

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탈 보면은요, 이쪽에 맨밑에 세입 합계에 100%가 아니라 101.1%가 나와야 맞습니다.

● 이기수 위원

김 과장님, 내가 위원님께 답변인데요.

● 이충원 위원

이 1%라는 게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 이기수 위원

저는 이제 평생을 수만 다루던 사람인데 이 각각의 프로테이지에서는 그 단위 이하로 갔을 경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토탈에서 나뉘었을 경우에는 그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삭제되고 올라가고 하는 차이 때문에 전체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이쪽 봐 주십시오. 이쪽 봐도 그 세출에 봐도 역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따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보면 학교교육에 소계, 학교교육 소계 보셨죠? 거기에 31.6%, 이쪽에는 29.2%, 그 다음에 교육행정에 소계에 보면 2.4%, 체크 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기타경비 해서

3.9%, 그 다음에 옆에 4.1%, 이거는 다시 한번, 뭐 계산에 넣으면 다 착착 나오는 거 압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수치가 적어도 1,2억 아니고 적어도 8,9천억의 0.1%라는 것은 엄청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이 수많은 수치를 교육위원들이 일일이 다 계산기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 이거 골치가 아픈데요, 본 위원도 맨 앞장 수치가 안맞는 것을 보고 제가 일일이 두드려 본 것 뿐입니다. 어느 게 맞는다, 틀리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도의회에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청에 이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세세한 것은 제가 뭐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 106페이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학생중식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맨 밑에 학생중식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진 중식비 총액이 얼마라고 아까 그러셨죠? 총액.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5억 3,100만원입니다.

● 이충원 위원

5억 3,000?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이충원 위원

10여일 전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도 터지고, 모든 언론에서 결식아동 중식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점심지원사업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건데 신문에 TV에 다 나왔어요. 작년보다 중식지원 대상 학생이 30%가 넘게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모자라는 것이고, 앞으로 해결 방법이 이번에 이 하시는 것으로서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5억 3,000가지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한 것으로다가 전부 보충이 되고요, 모자라는 금액이 약 한 저희들이 나온 것이 부족액이 한 3억 9,260만원인데 이것은 지사님이나 각 시·군에서 조달해 가지고 추가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도 우리 식구끼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이고 하면 9,000억입니다, 1조에 가깝습니다. 인건비를 빼더라도 우리가 3,0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쓰는 것입니다. 3,000억 정도, 그렇죠?

이 3억 정도 모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TV나 라디오에 애들 점심 못 먹는다고, 사실 학교에 컴퓨터 덜 사줘도 됩니다. 나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더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 위안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엄밀히 보면 우리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움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 예비비가 얼마 설정이 됐었죠? 예비비. 그리고 금년에 이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서 금년에 이월된 예산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470억...

● 이충원 위원

400억 정도가 이월된다고 그러면 3억 정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외부에다가 과연 손을 벌려서 창피하게 보도가 자꾸 나갈 수 있나, 또 이번에 적어도 5억 정도죠, 그렇죠? 이런 것으로 보면 저희는 이것은 조금 앞으로,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애들 점심 못 먹는 애들 있는데 무슨 TV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됐으니가 그런데 명년 예산서부터는 좀 남는 한이 있더라도 급식비, 이것은 몇 억 가지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좀 세워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 교육국장 이주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 이충원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뭐 다른 건 여기 보도기관도 게시는지 모르지만 좀 막는데, 이것도 너무 창피해서

말이죠. 보도에 막 그러니까 듣는 사람 천치고...

● 교육국장 이주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미 확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해서 그것을 예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면 외부에 창피하게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충원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답변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이것이 터져나오는데 저희가 지사님이나 남부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나오지만은 이 학생, 어린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전 도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통계를 내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거의 시·도지사님이나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합니다. 저희 도가 너무 적어서 제가 지사님하고 심의할 때 우리도 본 예산에서 다 주기는 하지만 한 4억 정도는 시장이나 지사님들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양반들한테도,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같이 전 도민이 여기에 대한, 결식아동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부탁을 했기 때문

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대로 참 좋은 방안입니다만은 전 도민이, 지금 여러분마냥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거마냥 지사나 시장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협조를 얻는 거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협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럼 이게 연초에 예산할 때에 금년에는 어느정도가 그 소위 결식아동이 들어올 거다, 대충 예측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받은 게 30%가 모자라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도 지난번에요 위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해 준 퍼센트가 저희들은 사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 되어야 몇백 명 생각했는데, 저희 도에 교육감님이나 도의원이나 선생님들이, 참 굶는 학생들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천명이 늘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30%가 늘은 건데, 그것을 늘은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걸러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들어온 숫자를 전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직접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또 학교에서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타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점심 굶는 학생들

은 100%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1,000명이 늘으리라고 사실 가정을 안했는데,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약 한 5억 3,000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3억 9,000은 지사님한테 확답을 받았습시다. 시장, 군수들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지사도 도와주고, 왜냐면 이것은 꼭 학교라는 차원에서 교육청만 부담할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부탁하는 대로 전 도민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심 굶는 학생이 없이 거기에 대한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증식지원 예산 타령이 메스컴에 그렇게 나가고 하게 되면은 다른 것 다 잘 해도 소용없습시다, 애들이 굶는다는 판에. 이것은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그것은 좋은 프로로 메스컴을 타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가서 얼마전에 여러 가지 자랑을 했더니 “탄소리 말어 이 사람아, 굶는 놈이 천지인데 무슨 교문을 새로 하면 뭐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학생들 급식이 점심을 굶는 학생이

생겨서는 안되죠, 우리 지금 현재 국민수준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배고픈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교육국 쪽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는 날만 점심을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방학 때도 줘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학교의 교육비로서 과연 애들을 급양을 전부 시켜야 되느냐, 이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이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학생이기 전에 벌써 도민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든 각 시·도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또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몇 번 절충을 하신 결과에 한 9억 1,300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약속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도청에서 주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은 예산에 반영을 했고, 시·군수들이 주는 그 예산은 또 시·군은 추경을 해서 또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들이 굶는 일은 하여튼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학생이기 이전에 도민이라는 공동부담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또 각 시·도의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부적격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서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는데, 서해수련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우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낸 안이 아무일 없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정말 번듯한, 뭐 잘잘못 간에 기왕에 이제 시작을 승인한 것이니까 번듯한 하나의 건물이 되고, 시설이 될 거냐, 이런 대전제하에서 여쭙보는 거니까, 뭐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전혀 제가 아닙니다.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도의회에서 서해수련원 예산을 삭감하며 도내가 다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기도 하고 TV에 나기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 도의회의 교사위에서는 이걸 제대로 동의할 지 모르겠지만은 예산특위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의회에서는 당초 교육감이 한 국비 100억원 확보 약속을 근거로 삭감하였고, 그것은 분명하죠, 왜냐면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충청일보 서해수련원 10월 9일자 월요일날 보니까 건

립논의 해 놓고서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비 추가확보를 요구한 것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하든지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전배 기자”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 혹시 안되면 2002년도 예산에 계속해서 삭감액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보면 조금 관심있게 우리가, 뭐 로비라는 말은 공적으로 쓰기가 어렵고,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집행청에서는 국고 추가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면, 저에게 제출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가가지고 본청에 가가지고 노력해 봤더니 안되더라, 그러니 짓기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 보낸 것이 있으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몇번 보냈다말여, 이거 안되더라” “아, 우리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뭐 국장님 가서 계속해서 달래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더라,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지방비로 해야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은 “이것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증거를 가지고 계셔 주시는

것이, 아까 대전제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가 국·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 보다도, 어느 도의원이 한 말입니다, 어린애가 용돈 달라고 떼쓰고 조르듯이 들 어줄 때까지 매년 예산요구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열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으로 끈질기게 예산을 올리겠다는 거냐, 깎인 것을, 도대체 그것이 고집이나 오기를 부리는 거냐, 본 위원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 잘 통과가 되겠지만은, 혹여 또 내면 또 깎이고, 첫째로 우리 위신이 안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 위신이 안서 가지고, 내놓으면 깎아버리고, 여기서 깎은 것도 부활시키고, 이 짓을 자꾸 하게 되면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삭감되면 우리 교육위원 입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할 때에 그 시설을 당장 금년 여름부터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요, 금년에, 이번 확보가 되면은 금년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금년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쪽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느냐, 우리는 처음에 승인한 거니까 얘기에요. 승인만 안했으면 내 얘기 안합니다. 이번 여름에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



제가 아니라면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아, 그렇게 하고 1년 더 좀 확보 노력을 해보지, 확보 노력을 해보지, 금년 당장 쓰지도 못할 것을 지방비에, 그 어려운 지방비에서 또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느냐, 한번 1년 더 노력해 보라, 그렇게 하고서 안 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4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강당을 지어도 10억씩이면 4곳을 지으니까 이것도 좀 준비를 해주십사, 왜, 이것도 처음에 승인을 안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저도 깎자고 그러는데, 저도 승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줄다리기를 하는 식으로 했을 때여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진천야영장의 경우가 좋은 사례 아닙니까?

제가 뭐 지나간 거니까 얘기 않지만, 과장님, 그렇죠?

진천야영장 경우가 사례인데, 이것을 조금 관심있게 봐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든지, 뭐 답변보다도, 그러시죠? 주문입니다.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충원 위원님께서 저희들 숙원사업이면서, 사업이 가장 진척이 안되는 서해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서해수련원이 가장 바다가 없는 충북 학생들의 호연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면서도 가장 이게 사업이 미진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또 제가 현재 업무 파악하기로는 도의원들은 “전체를 국고에 의존해서 하라, 도비는 못준다”라는 지금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과연 확정된 것까지도 예산을 삭감했었던 그 예가 있고, 또 이것은 전임 위원들이 또 현지까지 방문 다 해서 사업계획 해서 땅 사라고 해서 땅 샀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설비의 재원이 국고로 해야지 지방비는 안된다, 사실상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몇 %가 안됩니다. 약 91.8%가 의존수입인데 특별교부금이 오든, 뭐 일반 봉급 교부금이 오든 어차피 국가에서 오는 예산인데 일단 하여튼 특별 목적으로 120억을 따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72억만 지금 국고가 와 있는 상태이고, 또 도에서 지금 사업을 축소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우리가 400명 규모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부지정지나 아니면 토목공사에 하다보면 지상으로 올리는 건축은 정말로 참 미미하기 짝이 없는 건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이것을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아주 죄송스럽고, 또 2002년 당장 학생들이 여름에 다시 또 텐트 속에서 야영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미안한 감도 저희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달에 교육부에서 약 71억의 교부금을 주면서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사업이 지금 120억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71억밖에 주지 못하니 어떻게라도 이것을 더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가 71억 줬는데 그것 쓰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해서 딱 준 것인데 그것을 또 1차, 2차, 3차, 달란다고 계속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업의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모든 도에서 그러면 모자란다고 또 달라고, 모자란다고 또 달라고 그래서 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제 뭐 구두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도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국고에 의존해서 100%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23일날 71억이 목적없이 온 교부금이 71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원가지고 나머지를 쓰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98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부터 추진되다가 지금 이제 IMF 바로 직전에 감사원에서도 이제 그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해서 했지만은 충청남도나 대전이나 서울시에서 다 반대를 했고, 또 지금 현재 대전지역이나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충북만 수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각 도마다 다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래 이제 서울시교육청에도 지금 대전에 돼 있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각 대학이나 전문대학에도

수련원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이제 학생들 건강이라든가, 지금 자연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 이충원 위원

국장님, 제가 그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이것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또 깎이면 어떻하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대전제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 저희들이 그야 너무 잘 알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도 다 우리가 했고 그런데, 아까 첫째로 거기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거 또 깎이면 정말로 우리 망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아니 먼저 승인 안했으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했는데 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이번에 잘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정말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육위원회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20억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또 공유재

산관리계획에도 사실 143억으로 이렇게 승인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깎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를 100억 얻어와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삭감을 한 것인데, 다시 또 지방비도 어려운데 쓰면 되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다만, '98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100억을 국고에서 받아오시겠다고 한 부분이 그 후 2000년도에 교육부의 내부의 특별보조금 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0억을 더 받아들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14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서 5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더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연초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도의회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 우리 관리국장님 몇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지난 연말에 71억을 보통교부금으로 목적지정 없이 온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서해수련원을 47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사위원회까지는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예결위원님들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위원님들이나 교사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계시기 때문

에.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은 각자 각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결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안되면은 건물이 좀, 말하자면 기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살려주시시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그 예결위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반대했던 모모 위원님들이 왜 반대를 했는가 알아보니 내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도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않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번에 여기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이충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로가 걱정이 돼서 말씀입니다.

또 깎인다든지 하면 정말 그때는 참 창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아래쪽에 교실 8실은 어느 학교인지, 지붕방수 8실은 어느 학교인지, 289페이지에 제천교육청 관할입니다, 시설비.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89페이지 그 교실요?

#### ● 이충원 위원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일 밑에 하단에 10억 쓴 것은 송학중학교를 말합니다.

송학중학교 개축공사 부분이 지금 송학중학교 교실개축을 2분의 1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개축할 수가 없어서 2분의 1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지붕방수는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백운중학교 교실하고 송학중학교 2개 교실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접어 두시고 3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14페이지, 도로 넘어갈 겁니다, 그쪽으로. 위에 보면 401-02에 시설비 돼 있는데, 계단실 해서 2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1번하고 2번, 계단실하고 연결통로는 가덕중학교, 난방공사는 문의중학교, 4번, 5번, 6번, 7번은 포장, 담장, 배수로, 대문은 가덕중학교, 8번 수변전설비는 운호중입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개별적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표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인가 내용을 전혀 모르니

까. 이 많은 걸.

● 간사 김광수

아니 저 위원장님, 질문드리는데 의사진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작년에 추경에도 그랬고 본예산에도 그랬습니다.

이 시설비는, 시설비는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지금대로 하나하나 물으면 되겠어요? 지금대로 하나하나 물을 수가 없어서, 시설비는 일괄해서 어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빼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도 그것을 시설비에 들어간 것을 전부 빼줄 것 같으면 이런 질문 안 나오고, 아, 어디 거다, 어디 거다, 예산 보면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합니까? 이게 먼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추후로 시설비를 항목을 다 받았어요. 먼저번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또 여기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것을. 그래 이것을 일일이 페이지마다, 권마다 전부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 시설비다, 시설비 뭐 3억이다, 2억이다, 이거 5,600이다, 어디는 뭘 하는지 알아야지. 그래도 대충은 그 시설비의 항목을 빼줄 것 같으면, 현황을 빼줄 것 같으면 그것 보고서, 아, 어디 하는가보다, 어디 하는가보다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면 안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어디를 편파적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 안되

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이제 그 사업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를 명쾌하게 넣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심의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금액이 크고 학교 단위가 넓다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다 기록을 못하면 어느 학교다, 어느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예산서에다가도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기록을 못한다고 할 것 같은 면은 별도로 그것을 빼줄 수가 있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이게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 미리 파악하고서 본다든지 하면 “야, 여기가 뭐 어떤 데다.”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알으니까 그런 질문은 반복해서 안나오고, 예산심의를 좀 간편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우리가 제시해 갖고 전부 빼 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것을 안줘 갖고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충원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시고...

● 간사 김광수

그거 질문할 것 같으면 책장마다 넘기면서 몇시간 해야 할 거예요. 이거 어디거나, 이거 어디거나.

● 이기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라도 찾으면 우리가 읽어보고서 알으면 그런 문제를 우리도 질의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일괄해서 답변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텐데 이번에는 그것을 안하셨네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보조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으로서는 전담 공무원도 아니고, 상당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쭙보는 거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됐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면 위원님 개개인에 한부씩 바로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다음부터는요, 이제 추경도 있을 테고, 본예산도 있고 할테니까 그때에는 그것을 해 줘요.

● 이충원 위원

314페이지 아까 여쭙본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가덕중학교라는데, 국장님, 가덕중학교 건설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한번 가보세요.

가덕중학교에 관한 것인데 저는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있는 학교기 때문에 좀 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가덕중학교는요 앞으로 청주의 인구가 그쪽으로 넘쳐 흐를 겁니다. 거기는 아마 위치도 좋고 해서 제대로 지어야 하지 않나 하는 대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였죠? 가덕중학교. 제가 대충요 27억인가를 예산을 냈는데, 거기서 했는데, 20억인가 22억인가 잘 모르는데 그 정도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보니까 얼마이고 하니 17억으로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담당하는 과장님.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렇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4억을 반납을 했어요, 연말에 가서.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이번에 못한 사업을 다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예산확보 이전에 사실은 양쪽에다 파일을 받았단 말이에요, 22개를. 한두 개

도 아니고 22개를 이미 받아서 그게 되네, 안되네 해서 이쪽은 끌어 묶고 저쪽은 내버려두고 이 야단을 친 겁니다. 내가 알고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대로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기왕 지을 거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무자에게도 개인적으로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거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하지, 4억 남았다며, 남아서 했다고 하면 그거 쥐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번듯하게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제1회 추경시에 계단실 설비가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 시설과장 오형균

그때 다른 애로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했을 겁니다.

● 이충원 위원

그 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안하는데, 여하간 올라왔으니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되네요. 위치변경이 우리가 승인할 때는 남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충원 위원

남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동쪽으로 그 위에 금년에 와가지고 시설할 때에 동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바꾼 것은 우리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 바꾸는 거야. 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쪽에 한 것을 전부 다 그것을 없애고서 새로 짓기로 하셨거든요, 그렇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충원 위원

그러면 지금 된고 하면, 없애고 새로 짓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건물을 계속 썼을 때에 학생 교육에 지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정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대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쪽으로 그대로 짓는 것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반은 그대로 그냥 파기하고, 멸시시키고, 반은 쓰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반은 쓸 수 있고, 반은 못 쓴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건축연도가 현저하게 달랐다고 하면 그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연도인데도 불구하고 반은 그냥 계속 사용하고, 반은 그대로 멸시시키겠다, 이렇다고 하면 반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저는 보면 분명히 가덕이나 지금 보면 여기 미원 쪽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인구집중을 시키려고 하면 번듯하게 지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촌에 잘 지어주어야 인

구가 거기 모이지, 청주시내만 잘 지어주면 자꾸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원래 이쪽에 본체가 그러니까 멸시 연도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 연도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의 연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건물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할 수,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해서 그것을 하는 건지, 나 이것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 시설과장 오형균

건축연도는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왜냐 하면 작년에 청원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하면서 완전히 학교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일부 예산을 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썼었는데, 그래서 나머지를 그것을 7차 교육과정의 부족분을 새로 더 짓지 않고, 거기 있는 교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새로 건물 짓는 그 장소는 바로 1년 전에 교육감님의 재량 사업비로,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입구에 그 소위 그 뭇니까, 질지 않도록, 뭐라고 그러냐, 시멘트를 했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포장.

● 이충원 위원

포장을.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충원 위원

1년 전에는 그 예산을 못했습니까?

1년 전에 선거 전에 바로 1,200만원이나 줘서 그 길 닦았어요, 길 닦았는데, 1년 후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것을 1년 전에 그 래 거기다가 돈 따왔다고 길을 내고, 1년 후에 거기다 갖다 했다고 하면, 나는 참 이 거, 나라 돈도 내 돈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 했나, 안타깝고 해서...

● 시설과장 오형균

일부 시설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전체 시설 을 하다보니까, 새로 신축건물을 맞추다보 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충원 위원

좋습니다. 저도 두 번을 가봤기 때문에 질 때는 거기밖에 없대요, 새로 질 때는. 아, 그래 1년 전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인데 그걸 그래 진다고 거기다가 시멘트로 하고, 1년 후에 거기다가 또 건물 을 진다 라고 하면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건 그렇죠. 예, 저도 학교 얘기도 여기저기 좀 들어봤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525페이지 봐주시 기 바랍니다.

지방채조서입니다.

당해연도 상환계획액입니다, 당해연도 상 환계획액. 보셨죠, 국장님?

여기에서 상환이자가 국고에서 나가는 겁

니까, 지방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체는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국고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국고에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이충원 위원

다행스러우네요. 제가 보면은, 2001년 4 월 2일 이거 난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국가 이자 지만 엄청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 야 할 것인가 나 이거 걱정이예요. 나라 빚 도 빚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요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위에 보면, 연도별 예산현황에서 2001년 도 추경예산,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비가 그렇죠? 세 군데죠 이게 주는 게, 그러니까 한군데 1억씩 주는데, 연구시범단지운영, ICT활용시범단지운영인데, 모르겠어요 예산 배정원칙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 게 똑같이 뭉터기로 돈이 있으니 그냥 한 서너 군데 1억씩 이렇게 준다 라고 하는 인 상이 들어서, 어떤 산출근거가 있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 다보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5번, 사항별 세부내역 보시면은, 시범단지 교육청 지정인데 시·군, 어느 시·군입니까, 지정, 시·군지정.

● 교육국장 이주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정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공모 중에?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없고?

● 교육국장 이주원

그 돈은 안 썼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기준도 제시했습니까, 이러 이러한 기준이어야 된다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고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단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씩 무더기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요, 충북이 11개 시·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로, 세단지로 묶어서, 4단지로 묶는 것이 대개 원칙입니다만, 그 중심 교육청에서 4개 시·군 내지 3개 시·군에 정보활용센터를 건립해서 좀더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계획서와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4개 내지 3개 교육청 공동으로 ICT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단지조성 계획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 1억이면 충분합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충분하다는 것 보다는 교육부에서 대개 그 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갖춰야 할 것이. 기본 서버라든지, 거기에 하드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씩 현재...

● 이충원 위원

1억 정도가 되면 우선은 되겠다, 이 말씀이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교육청 아까 가덕같은데 4억 9,700, 그렇죠? 126, 그렇죠? 국장님, 126페이지 보셨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이충원 위원

1건당 5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이충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낮간지러워 그렇니다. 거기다가 5억을 안만들기 위해서 4억 9,782,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산출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거기에 얼마, 뭐 몇 천만원만 더 들어가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니까, 아, 이거 귀찮으니까 이걸 이렇게 좀 어디서 깎아놓자, 이래서 한 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 꺼먹눈에 그렇게 보인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국장님,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추경할 때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추경을 두 번 하는 거다, 세 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교부금이 불입이 돼서 하는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지만 마치 찢어 벌린 느낌이 들어서, 왔으니 공평하게 골고루 다 이렇게 줘야 하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지금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좀 큼직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충

북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속개할텐데 오후 2쯤 어떨까요?

● 이기수 위원

예, 2시쯤 하시죠.

● 위원장 조일환

예, 그래서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2시까지 자리를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일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충원 위원님께서 자세히 하셨는데 혹시 중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이상일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일환

예, 이쪽 순부터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추경준비 하시느라고 집행청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도 드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10쪽에 보면,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이 있는데, 거기 다목적 교실은 3개 교실을 짓는데 3억 9,620만원, 그래 이 다목적 교실은 어떤 형태로 짓는 건지, 그거, 이따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연구실이 평수가 다르고, 특별교실, 이렇게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실 한칸 짓는데 5,300에서 한 5천 5,6백,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다 교실마다 다 달라서 어떤 형태의 다목적실이고 어떤 형태의 교실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수선이라고 해서 210개 교실을 8억 4,891만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국장님, 답변 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

시겠어요?

● 시설과장 오형균

예. 7차 교육과정에 3실이라 한 것은 우리가 보통 2실을 갖다가 1실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실이면 여섯 교실이 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한칸에 1억 3,200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래 이것을 다목적 교실 크게 해 갖고서 이것을 3실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칸을 가운데 막지 않고 그냥 조금 크게 만들어서 한칸 짓는데 대개 한 1억 3,200 정도 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대수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교실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이것은 지금 210개 교실 전체를, 단가를 곱한 숫자가 나와버렸는데요, 이것이 내역적으로 학교시설 사업별로,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수선실을 전부 다 합쳐갖고서...

● 이상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액수 총액이 아니라, 대수선의 의미, 교실을 어떻

게 하는데 대수선인가, 저기 위원장님, 혹시 허락하시면 과장님보다 직접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도록...

● 시설과장 오형균

아닙니다. 대수선은 지금 현재 벽체보수하고, 천장보수하고, 그러니까 바닥보수하고, 전체를 다 털어서 지금...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벽만 놔두고 매사를 싹 새로 고치는 거죠?

● 시설과장 오형균

아니, 이것은 학교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벽만 고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천장만 고치고, 어디는 바닥을 고치고, 어디는 두가지 합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시설비 현황에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여기 자세한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서해수련원에 관해서는 이충원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도 해 주셨고, 또 집행청의 답변도 들었는데,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2대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의 승인을 심의를 해서 허락을 하셨고, 벌써 횡수로 5년째 이 수련원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 여러 기관에서 지리한 공방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기로 한 거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주지역 사회에서 거기까지 가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른 시·도는 수련시설을 잘 지어서, 호텔이라는 표현을 쓰면 낫지만 그런 시설에서 즐거운 야영을 하는데, 우리 충북은 그게 없어서 맨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심지어 재수가 없는 때에 간 학교들은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와 가지고, 도대체 교육위원회에서는 뭘 하고 교육청에서는 뭘 하길래 이거 하나 짓는 것도 질질 끄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뭐 시설이 많은데 왜 중복해서 하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충북은 바다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바다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이번에 도의회 가서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강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보조원 임용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산보조원을 285명을 5개월간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임용절차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하는 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컴퓨터에는 워드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인터넷에 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서 소정의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자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그 서류를 받아서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것은 저기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선발해서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당해에 학교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한다, 그런 말씀이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립학교 3개, 가경중학교,

울량중학교, 음성중학교, 또 사립에 충주 미덕중학교는 신규고, 복여중은 두칸 있는 것을 한칸 달아내서 증축하는 거고, 영동 영신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이제 중학교 급식시설을 다해 주는 완성 연도라고 그럴까요, 그게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2003년도입니다.

● 이상일 위원

2003년도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상일 위원

그래 이제 이것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봐가지고 시급한 데서부터 정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상일 위원

제가 분명히 충청북도교육위원이지 북부나 충주 교육위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충주 중앙중학교가 남녀 같이 배우는 학교인데 학생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유독 충주시내 중학교 중에 그 학교가 급식시설이 없어요. 작년부터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 해 줏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건의를 몇번 받았고,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워 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가능한이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금년도 실시합니다.

● 이상일 위원

중앙중학교를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빠졌지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당초 예산에 서 있어요? 중앙중학교.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상일 위원

난 없는 것으로 봤는데,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거기 3억 1,800만원이 이미 서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러면, 잘못 댔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상일 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 사항별설명서 99 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맨끝에 보면은,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교육정보화과 맨끝에. 제2

차 전산보조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된 것 같은데 이게 안쓰이고 다시 반환이 된 거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차 전산보조원 인력이 261명이 배정됐었는데 2000년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간 이렇게 채용한 바 있는데 사업결과 진행잔액이 작년에 6,417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주요 발생한 그 이유는, 제일 먼저 전산보조원의 월 보수가 65만원으로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55만원 수준으로 저임금이 가장 큰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65만원을 줘도 보험료라든지, 또 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료, 이런 것을 공제하고 나면 5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농촌 벽지 학교에 전산보조원은 필요하나 벽지 오지 학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배정했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배정을 했지만은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세 번째는 통근거리가 먼 학교에 취업된 경우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아까와 같이 실제 소득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겨서 그마만큼 집행잔액이 남게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주라는 액수는 일반  
얼마로 해서 5개월만 쓰라는 게 국가의 지  
침이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이 국가가 잘못된 게, 그래 대  
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갖고 그러는데, 암만 취  
업난이지만 돈 55만원을 받고 취업을 해요?

● 교육국장 이주원

55만원이 아니고요, 65만원.

● 이상일 위원

아니 결국은, 결국은 수령액수가. 그러면  
뭐 교통비 빼고 뭐 이러면 이게 뭐가 남습  
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괜히 전시성 예산이  
지, 다만 한 사람을 쓰더라도 월 80만원이  
라든지, 생계에 보조가 될만한 것을 줘야  
지, 이러니까 이게 돈이 국가에서는 선심성  
이지 이게 갈 사람은 없는 거라,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쪽에 학교운영지원과  
에 맨 끝에 사학지원비에 보시면,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경영평가 우수기관 지원인데 이것은 어  
떻습니까,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초등은 초등대  
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  
학교대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고등학교만 합니다.

● 이상일 위원

고등학교만, 초·중은 제외되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균등하게 갈리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으로 해서 뭐...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차등으로 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1등은 얼마입니까, 그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1등은 제가 기억하기에 2,500, 2등은  
1,500, 3등은 1,00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이런 것은 모조록 사학이 유지재단에  
서 보조도 좀 많이 하고, 성실하게 자구책  
을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따져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정확하게 잘 평가가 될 수 있도  
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시설과, 거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다목적 강당 3개 학교를  
짓는 것으로, 그 위에 설계비 말고 시설비  
만 21억 1,38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교육부에서 그 지  
정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 그겁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이고, 지방비를 더 추가한 것은 아니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지방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다음 2차 추경때 거기에 좀더 보탬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완성을 할 건지, 그것 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강당, 다목적 강당이 이제 주로 권장시설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학교환경 여하에 따라서는 사실상 좀더 지방비를 더 보태서, 좀더 현대적이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좀더 원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강당을 짊에 있어서, 어느 학교는 좀더 시설을 더해 주고, 어느 학교는 덜해 주고 그러기가 상당히 난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각 학교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특별히 교장선생님이 원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경우를 제외 놓고는 현재까지는 하여튼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이 위원님 말이예요, 먼저번에 정칙적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온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때 4억 5,000만원 받았었는데요?

● 이상일 위원

아니 6억 7,000만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 지방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지난 해에 질문을 하셔갖고 답변을 이미 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기계공고 기숙사를 지을 때에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짓기 위해서, 솔직히 제가 당시에 과장이었습니다만은 액수를 좀 올려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돼 갖고 1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 지방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초·중은 6억 1,500, 고등학교는 7억 한 3,800 정도가 단가입니다, 내려주는 단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3억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더 받아왔던 부분을 채워넣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금년도 1월에 충북공고에 17억을 기숙사 건립비를 내줬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해에 13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이 어떤 각 도가 관행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만 그렇게 일부를 안줄 수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금년 1월에 17억이 더 왔습니다. 사실은 4억을 더 받아와서 중복공고하고 영동고 기숙사비의 건립과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비가 왔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내주는 단가에 더 보태준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맞춰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강당신축비에 지방비를 더 추가로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충주의 남산초와, 거기는 체조지정학교입니다, 거기는 도움닫기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조금 내려와서 지금 그것이 결산검사도 나왔습니다만은 뒤를 이어가면서 추가로 더 중앙에 요청해서 받아오도록 요구를 학교에서 지방의 그 국회의원님들 하고 몇 분이 로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불가능 해서, 다만, 거기만은 저희들이 지방비를 더 준 예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4쪽에 시설과 난방개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실 한칸을 심야전기로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420만원입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맞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49개 교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석유값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심야전기로 교실을 다 하는데, 이게 새로 짓

는 것은 요새 다 그렇게 하는데 언제쯤이면 개선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인문계고등학교는 다 끝났을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금년도에 인문계열이 끝납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상일 위원

그거 사립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공립입니다, 사립은 한 학교만 들어갔고...

● 이상일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가능한이면 이제 뭐 사립도 바뀌니까 다 한다고 그러면 공·사립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립만 다 된다는 얘기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된 학교가 있어서...

● 시설과장 오형균

사립은 많이 안됐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시면요, 기왕 사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과장님 앉으세요.

● 간사 김광수

거기는 사립이구만 그려, 지금 질문하는데는 사립이구만, 154쪽에...

● 이상일 위원

예

● 간사 김광수

거기는 사학여.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요근래 고등학교에서 애들을 빨리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되고 뭐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저하, 그리고 대학 들어간 애들이 뭐 기초학력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밤 늦도록 공부한다는 것을 내쫓는 다는 게 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밤늦게 애들이 있다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화재의 우려도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립을 구분하지 마시고 좀 인문계고등학교는 가능한이면 빨리 사업이 이륙돼서, 학생들이 늦도록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라도 인문계고등학교는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교육청은 제가 뭉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작은 예산만 들여도 가능한 사업이 참 많아요. 조금만 넣어주면 그게 참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 이제 지역교육청에 물어보면 지역교육청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 책임하에 쓰도록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작년엔가 제작년서부터 집행잔액을 전체로 도교육청에서 전부 회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수의 이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재분배 하는 게 합당하다 하는 게 이유이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에다가 컷더니 불필요한 데다가 자꾸 예산을 써버려서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 실례로 청구의도 학교가 안해도 될 것을 뜯어가지고 했다 이러는데, 저는 이것은 얘기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권한을 자꾸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고,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게 좋은데 아껴쓰고 남은 집행잔액까지도 도에서 다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이 늦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 교실을 하나 짓고 그 부근에 화단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얼마 안되는 돈을 거기 집행잔액 집행하게 주면 쉬울 것을 전부 돈을 이쪽에서 가지고 와서 모아가지고 몇 달 후에 예산편성을 또 해서 받아야 되니까 늦어진다고 이거예요.

지금 지역교육청을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니고, 학교회계제도가 돼서 거의 다 예산이 학교에 내려가고 지역교육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얘기해 봐야 아무것도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아, 여기 지역교육청 아니고 무슨 사업소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뭐 제 얘기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이면 큰 액수가 아니고 웬만한 집행잔액은 일선 지역교육청에게 쥐서 예산을 제때 제때, 필요한 때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참고로 질의 한번 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일 위원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사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재정적으로 대폭 축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회계가 생기면서 더욱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어찌 보면은 교단의 자율권을 주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비단 지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목적경비로 편성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집행하는 이런 것을 대폭 줄여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목적사업을 다 학교에 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지역교육청은 어려움에 더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설비 잔액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대개 후반기에 지역교육청별로 현안 문제를 즉 자기들이 발

체를 해갖고 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급한 대로 사용하게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학교예비비 중에 대략 한 5% 정도를 교육장님께서 유보를 좀 시켜서 현안사업에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학교운영비, 지난 해의 학교운영비라든지 행정경비라든지 또 기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 잔액은 전액 이번 추경에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대개 2억 내지 3억 가까이 가져가서 그냥 자그마한 사업들은 교육장님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지역교육청도 함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 간사 김광수

아까 이상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인데 이따가 중복을 안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죠, 다목적교실하고, 아까 뭐 세가지가 있죠, 특별교실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목적교실하고,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것을 취급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시설과에...

● 간사 김광수

시설과에서는 지어주기만 하는 거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활용은 학교장이 하지요.

● 간사 김광수

이런 것은 교실이 말하자면 다목적교실 3실 짓는데 3을 곱하면 600만원, 또 교과연구실은 9교실 짓는데 3억 3,900만원, 그래픽기가 다르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죠.

● 간사 김광수

크기가 다르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7차 교육과정에 용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도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현재 7차 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부 다 커리큘럼을 짜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통 우리 교실이 복도 포함하면 25평인데 빼면은 20평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40명이나 50명을 놓고 수업하는 교실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교실 두 칸 정도는 털어가지고 두 칸이 한 반 할 수도 있고, 또 취미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교실을, 공간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교과연구실은 주로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끼리 같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런 건 어디 어디에는 이런 교실을 지어줘라, 이렇게까지는 안나오고...

● 간사 김광수

7차 교육과정에 이런 교실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필요하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시설과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왜 시설과에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가다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은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과연 커리큘럼 이용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의심이 갑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럼 이것은 시범적으로 넣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설공간이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이해가 되셨습니까?

● 간사 김광수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럼 다음 위원님, 이기수 위원님.

● 이기수 위원

예.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집행청 관계관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 질문도 보충질문 됐기 때문에 교실문제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10페이지에 처음에 시설과 소속이겠지만은 수준별 교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보충질의·답변 부분이지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함으로써 사이즈를 좀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꼭 그 교실이 큰 교실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준별로 본다면 어느 대학은 선택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가고 학생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서 다양하게 학생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보면 20명형 교실, 40명형 교실, 60명형 교실, 80명형 교실, 이런 식으로 교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과에 40명 들어간다는지 하면 보통 필수과목에서 40명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20명 교실이라든지, 30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개 이용하고, 나머지 선택

은 학생수에 따라서 10명이라든지, 10명이면 (청불)인가 10명, 15명 이렇게 돼 갖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확실적으로 말입니다 교실 두 개를 터서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교실을 해갖고서 수시로 칸막이를 없애든지 하면 한 교실이 된다는지, 막으면 조그맣게 된다는지, 이런 구상을 처음부터 하고 설계를 하셔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두 개 교실을 하나로 한다, 이렇게만 해 놓은다면 나중에 우리가 씬니까, 열린교실 때문에 터났다가 다시 막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것을 잘 구상을 하셔갖고서 했으면,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다목적교실이니, 교과연구실이니, 특별교실이니, 수준별 교실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나 아니면 교실의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가 이제 어떤 데는 20명자리도 있을 테고, 15명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40명 내지 50명자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또 명칭도 교장선생님들한테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실로 하든 애들을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꼭 이것은 뭐 다목적교실이니까 몇 평이고, 또 교과연구실

이니까 몇 평짜리다, 이런 것은 뭐 저희들도 앞으로는 계속 지양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교실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실 3.5실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세 실보다는 크고 네 실보다는 적은 그런 개념이죠? 그 계단실은 어느 용도가 사용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1층, 2층, 3층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실이 거든요, 한층 사이에 있는 것이.

● 이기수 위원

계단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7차 교육과정이나 일반시설을 할 때에 보통 우리가 개념 상으로는 교실 몇 칸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설을 하다보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화장실, 계단실, 뭐 이런 필요공간,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간이 있어요. 그 밑에 계단실이나 화장실이나 난방실이나 아니면 우리가 층계 올라갈 때라든지, 특수학교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되는 데는 또 승강기까지 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본 교실을 짓기 위한 필수시설, 부속시설입니다, 이게.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 오르내리는데 이 계단이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뭐냐면 계단교실 같은 데 이제 보통 80명이라든지 100명씩 넣어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교실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학생까지 전부 볼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래갖고 보통 뭐냐면 고등교육기관에서 계단실이라는 얘기는 계단형식, 계단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방식으로 지실 때는 뭘니까, 계단형식으로 해줘 갖고 뒤에 학생들이 앞에도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모양도 해 볼직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10페이지에 조도개선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 조도에 100% 만족하는 겁니까, 아직도 조도 개선이 미흡한 데가 있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10페이지에 나와있는 조도개선은 오창고등학교의 20.5실에 대한 한 학교 분입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도 만족도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일반 교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실업계는 좀 덜 된 거예요?

● 시설과장 오형균

실업계는 실습실 빼고 일반 교실은 다 돼 가는데 실습실은...

● 이기수 위원

그리고 기준조도 320LUX조, 지금도?

●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300LUX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300LUX, 더 상향조정하 그...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거의 교실은 만족하단 말이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기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9페이지도 있지만 중심학교 예산항목에 그 26개 학교에 100만원 씩 배정됐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 주며, 어떤 시설을 짓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어떻게 해서 100만원은 어떤 산출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아울러서 또 뭐니까, 단 재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영어마을조성이 있는데 영어마을은 어떻게 조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와 또 이제 엇그제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이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한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성에 대한 얘기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학교에서도 순수하게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순전히 영어로만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몇가지에 대한 사항을 한번 같이 합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먼저, 영어시범사업 중심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교육부에서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영어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의 영어시간에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일부 신문에서는 영어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하라니까 100% 모두 영어로만 수업하는 걸로 오해가 돼서 그 후에 교육부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이 어느 영역, 어느 범위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1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많게는 한 50% 정도, 그래서 학습에 쓰이는 지시어, 학습용어 정도, 보통 클래스 룸 잉글리쉬라고 그러는 그런 부분 정도를 활용하는 것을 영어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학교에서...

● 이기수 위원

클래스 룸 잉글리쉬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클래스 룸 잉글리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책을 펴라, 받아라, 조용히 들어라, 반복형 몇가지 하는 그런 정도의 영어, 그러니까 1시간의 수업 중에서 많게는 한 50%, 단계적으로 해서 50% 정도의 교실용어를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는 정도의 영어로 하는 수업으로 정의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초등학교에서도 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까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전개를 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지역교육청 별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교를 모두 26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그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수업교재, 그것도 관련되겠지만, 실제로 영어로 하는 수업이 지도안이나 이런 자료같은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중심학교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언론에 보도된 자료처럼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느정도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부에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제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1시간 내내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판단을 요구한 자료입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하는 경우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수업의 일부, 아까 말씀드려서 한 50% 정도만 영어로만 하는 선생님, 또 하나는 모든 수업에 영어는 별로 안 쓰고 우리말로만 쓰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초·중·고등학교가 좀 다른데 전체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전체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교사는 초·중·고등학교 통합해서 10%가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른 과목도 영어로 합니까, 영어만이죠?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영어만, 영어시간에만.



● 이기수 위원

영어시간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리고 수업의 일부, 한 50% 정도를 영어로만 진행하는 교사는 초·중·고등학교 해서 84%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6%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학년초에 조사한 자료인데, 이 자료보다 지금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리말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6%가 있는데 이것은 좀 거의 없애도록 하면은 50% 정도의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영어마을 조성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재교육연수원에 원어민이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는 원어민 교사가 7명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만든 시범 단계인데 유네스코나 또는 교육부에서 위탁한 다른 기관에서는 영어교사가 연수를 받는 기간 동안에 영어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그래서 잉글리쉬 빌리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시도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원어민과 함께 주야를 같이 생활하면서 말하기 능력을 신장을 시켜서 학생들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런 방안입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선생님들 연수를 하는데 평소에 학기 중에 선생님들을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나오시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이 상설이 될 수 있다면은 많은 선생님들께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한번 해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영어 빌리지, 잉글리쉬 빌리지 조성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직접 부딪쳐가지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생활영어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벌써 했어야 할 좋은 방법이겠고, 첫 번째 설명했던 그런 거, 간단한 생활영어라는 것은 수업에 들어와서 책 퍼라, 책 닫아라, 출석 부르고 뭐 그다음 행동을 영어로 이렇게 하는 영어는, 간단한 영어 패턴은, 생활영어 패턴은 선생님들이 익혀가지고 하면 되는 일인데 그 100만원씩 주면 책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서 갖고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되도록 외국인을 많이 이용해 갖고서 직접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생활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질의드릴 말씀은 소년체전

국고지원 하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고로 다 되는 겁니까, 그게 또 우리 지방교육재정에서 많이 보태야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 지방재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충북같은 경우는 200명도 안되는 (청불) 그래서 거기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장비비라든지 훈련해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도 사회체육과장이나 교육감들이 이 최소한도로 이 경비를 4억 정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일선학교 소년체전 끝나무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저희들이 여기 한 3억 1,000 됩니다만은 저희들 출전인원이 716명입니다. 그래야 하나에 돌아가는 경비가 약 한 42만원 정도  $4 \times 7 = 28$ , 네명 정도 있는 선수가  $4 \times 4 = 16$ , 160만원 정도, 액수는 많아 보입니다만은 그 정도이고, 또 장비비로 최소한도 20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3억, 올해 4억, 내년 가면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준다, 그래서 이번 다시 저희들 회의를 개최합니다만은 최소한도의 경비를 저희들이 갖다가 전액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지원을 해서 힘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1페이지에 중등교육과 소속된 문제입니다.

지금 교원단체의 사무실 임대비로써 1억

6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교조, 한교조 임대비를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1억원요.

● 이기수 위원

1억원씩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는 이제 지원했으면 그쪽에서 자립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 임대료 준 것을 다시 회수할 예정입니까, 한번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했으면 그쪽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똑같이 지원하실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연말에 전교조 사무실에 1억원에 해당되는 건물을 임대해 줬는데 그것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2년 후에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단체에서 저희가 임대해 주는 사무실 이외의 것으로 자립 능력이 있어서 건물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해 줄 필요성은 그때는 없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교원단체연합회는 사실 저도 교원단체연합회 현재도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시도 지금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무실을 우리가 절로다가 짓는 바람에 우리가 불편해 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전교조같은 데는 사실 월사금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같은 게 얼마 안돼서 참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교원단체연합회같은 데는 사실 이것을 시내에다가 지었다든지 불편한 점만 없다면은 이것은 사실 여기서 지원을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거기다 짓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뭐 회원들이 와서 방문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들도 출퇴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말 잘 지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 언뜻 듣기는 뭐 경로당 무슨 연찬 기관으로 쓴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연찬 기관으로 쓰기가 용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도 있지, 과학교육원도 있지, 연찬 기관은 많은데 그럼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누가 쥐가면서 연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교원단체연합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잘 생각하셔서 교원들 사기를 위해갖고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시고, 전교조나 또 다른 쪽에서도 참 열심히 해야 되고, 이 교총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그쪽 교원단체연합회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셔갖고서 그 건물을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내갖고서, 거기가 무슨 연찬을 해 거기서, 교원단체연합회 회원이 4,800명이 나 되고 말입니다, 또 연도도 오래 됐고, 또 재원도 거기 말고서도 산도 있고 말입니다, 거기 교원단체연합회는 그런데 잘만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충북교육재정이 열악한 데서 말입니다 1억씩 이렇게 임대료 갖다가 시내에 사무실 얻어갖고 하고, 그쪽은, 모

르겠습니다, 저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그네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비워놓는다든지 하면 사실 우리 교육재정 1억원은 이게 앞으로 정말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솔직히 제가 욕먹을 것 같으면서도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부회장도 하고 시의 부회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서 그 교원단체연합회 쪽과 앞으로 협의하셔 갖고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이기수 위원

페이지 32페이지에, 초등교육과에서 출제경비가 증액된 것은 왜 갑자기 더 정원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경비는 봄 시험을 치른 후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시험을 보는 관계로 해서 경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1에 교원연수 하면서 일본어 교사 부전공자만 있습니까? 어떻게 일본어 교사만 그렇게, 자격취득에, 다른 과목은 없었어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일본어 교사 연수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제2외국어 중에서 독일어 하고 불어과 교사가 남습니다. 남게 되는데, 이 남는 사람을 공립이든 사립이든 일방적으로 교단에서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이전부터 수요예측 조사한 것이 중국어 하고 일본어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시·도별로 일어과, 불어과 선생님 중에서 공·사립 막론하고 중에서 일본어 부전공 자격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았습시다,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을 시·도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 도에 공립 5명, 사립 4명 해서 9명이 배정이 됐는데, 그 인원입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51페이지에 실험폐수저수조 시설이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불충분한 데는 없으며, 또 환경오염에 문제 없습니까? 대개 학교에서 이제 폐수를 처리해 갖고서 좀 깨끗한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잘못 처리해 갖고서 오염된 물을 내려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킬 우

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의 반영인데 진천농고의 폐수조입니다.

● **이기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무과 소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 페이지를 적었는데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세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 그 이자부담액을 책정하신 것은 아주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던 교사 성과급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며, 준다는 거면 얼른 방법이 모색이 돼갖고서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을 하게 될텐데, 그 거 이 방법, 저 방법 얘기하고 교원단체연합회나 또는 전교조 쪽의 의견이 다르겠고, 선생님들 의견 다르겠고, 주는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주지 않고서 아마 지금 확실한 그 지급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 가다가 인적자원부로부터 보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후에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직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어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것 좀 강력히 건의하고 나머지 교원단체나 전교조 그분들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건의해 갖고서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왕에 줄 거면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게끔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화장실 개선 13조 14실인데, 지금 학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된 게 몇 %나 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학교 수세식은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이 돼 있거나 한 경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식,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여러 학교에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것이 학교를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같은 건물 내에 돼 있고, 수거식은 주로 운동장가나 별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했을 때 학교에 오는 쉽게 말하면 방문객이라든가 뭐 운동을 하러 온다든가,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것을 철거를 좀 안하기를 원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용은 지금 환경만, 담거나 폐교될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또 생각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또 원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소는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되도록 빨리 수세식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에는 급수시설 개선이 1개교 있는데, 지금 작년도 본드든지 하면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검사는 1년에 몇 번 하는 건지, 또는 급식소에 대한 검열 말입니다,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학교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과장님이 내일 소년체전으로 바쁘실 거예요. 우리 이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 이기수 위원

예

● 위원장 조일환

과장님 대신, 실무 계장님이시죠?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예

● 위원장 조일환

답변하세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수질검사는 1년에 4회 이상 지역보건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얻어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급식학교 위생점검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연 2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예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두 번은 다 받게끔 돼 있습니까, 어느 급식소든지간에, 어떻습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교육청 실무진과 도교육청 실무진이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서는 한 건의 전염병이나 또는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이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만 제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계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먼저 행정질문을 할 때에 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있다, 뭐가 어려우냐, 인력이 어렵다, 인력

이, 그래 그 인력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직원이 사무량이 많아서 어려운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보건원이나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월 1회 해달라고 했더니, 아, 우리가 업무가 많아서 못해, 하고 하는 거냐, 어느 겁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글쎄 의뢰를 하는데,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연 4회밖에 못한다, 이유가 뭔가, 인력이 모자란다, 인력이. 그러니까 그 인력이 모자란다는 게 우리 학교나 교육청의 사무직원의 인력이 떨어져서 월 1회를 못한다는 거냐, 아니면은, 아, 월 1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 보건소나 환경보건원이죠? 거기에 의뢰했더니 “아, 우리는 한달에 한번 못해” 하는 거냐, 어느 쪽입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그쪽 기관의 사정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제가 기관에 전화로 문의했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거 질의한 사실이 없다는대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도 인력이 딸리고요, 또...

● 위원장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자, 우리가 이런 애로가 있어, 애들이 동물 먹는데, 인이라는

게 동입니다, 동, 그런데 공임받은 상수도 물도 한달에 한번 검사를 한다, 청주시에도.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먹는데, 그래 그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연구원에 물어 봤어요, 혹시 이거, 아니, 저희들은 언제든지 기관에서 하면 언제든지 해 줘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연 4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 위원장 조일환

제발, 제가 이 행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정말 위생 생각해서, 식중독 걸려서, 이거 한달에 한번 해 줘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무슨 인력이 모자라,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확인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해 줘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제발 정말 우리 충북이 식중독 최고 아니예요, 우리. 전국 최고 아닙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하자 이겁니다. 평생체육과에서 식수 검사하게 나와,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저 조무원 시켜서 다 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학교운영비에서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차제에 정말 저는 정말로 양심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 달라고 안합니다, 제가 예산 달라는 거 봤습니까, 뭐 어디 해 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제발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하자 이겁니다.

계장님.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예

● 위원장 조일환

과장님한테 꼭 전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도와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글쎄 거기는 언제든지 검사 의뢰하면 해주겠대요, 의무적으로. 사무가 많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해, 무슨 법으로 거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 알아봤더니, 위생업소나, 군이나, 학교에서 의뢰하면 가야지, 우리가 바빠서 못 가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다르지 않느냐, 제가 이래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로 아이들 우리 충북에 전염병 좀 줄여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 이기수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이 여기 안오셨는데, 누가 안왔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대로 서면으로 줘 보세요.

▶ 참 조 : 서면답변자료(별첨 2)  
(끝에 실음)

충북중앙도서관의 도서확보율이 얼마며, 도서관의 그 장서에 대한 소화시설이 돼 있는가. 두 번째, 도서 도난방지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느냐, 감열테이프로 되어 있느냐 또는 뭐 또..., 전자도서실로 바꿀 그런 계획은 서 있느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책을 사면 장서공간 확보가 문제입니다. 장서공간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계획인가,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책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 공간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도서관에 구입선정위원회나 폐기위원회 같은 낡은 도서 폐기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지,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혹시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 한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2페이지에 학생야영장의 수질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창 지나서 어디입니까, 문백인가요? 진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진천.

● 이기수 위원

거기 수질이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는 일정하게 측정 안하시고 벗고 들어가서 재보니까 괜찮다 라고 이렇게 해보였다가 모든 교육위원들이 웃고 말았는데, 어떻습니까, 수질문제.

● 평생교육담당 이종석

아직은 애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서 지금 추진 중인데 폐수관계, 생활배수 관계는 지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 힘만 갖고서도 안되고 이제 진천군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노력해서 갖고서 물도 학생들 쓸 수 있게끔 부탁하고, 안전사고 문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 이상일 위원

이 위원님 끝에 하시기 전에 중앙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한가지만...

여기 중앙도서관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딱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접때 충청일보 보도에 보니까 충북대학교의 그 어느 교수님이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가장 불만이 많은 기관 그래가지고 중앙도서관, 두 번째, 동물원,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 중앙도서관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건데 집행청에서 조금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기왕이면 가장 선호도가 있고, 유용하게 이용하고, 좋은 기관으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불릴만한 사유만큼 부실한 것인지 한번 집행청에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수고스럽지만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이 단축됐지 않습니까, 3년이 줄었죠. 그러면 3년 줄인 뒤에 선생님들한테 우리 충북교육청의 인건비로써 우리가 지불한 교육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62세로 줄인 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3년차입니다.

● 이기수 위원

3년차죠. 그럼 계속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 숫자가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신문지상에 선생님 한 분 나가면 뭐 세 분 봉급을 준다든지 뭐 교육재정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우리 교육재정을 절약해 왔는가,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끝나서 가지고 계산을 해서 주신다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의 계산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됐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데, 다만, 그 인건비 절약분이 우리 도에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

씀드려서 좀 의문입니다. 과거에 표준호봉제가 있어가지고 그 표준호봉제에 의해서 인원수를 곱해갖고 무조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줄 때 그 산출기준으로 삼았는데, 최근에 와서 각 선생님들의 호봉을 심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불)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돈을, 봉급자료를 나눠줄 때 저희들 도에 그만큼 절약된 부분이 떨어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명퇴로써 지금 채우는 전액 국가에서 갹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30분 거의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 아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말 계장님도 자녀를 둔 입장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을 검사하면은 1월달에 하고 또 언제합니까, 3월 달에?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3월 하고 아직 안했겠네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6월에 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렇죠. 지금 갈수기에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그치는 정말요 그런 행정 하지 말자고요. 갈수기에 상수도원도 오염이 돼서 1급수가 3급수, 4급수로 떨어집니다. 하물며, 지하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리청에서 지역청에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갈수인데 수질이 어떠냐, 하절기 돌아온다 말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특별히 부탁을 올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조일환

이것은 당장 갈수기도 되고 하니까 한번 수질검사를 미리 하셔서, 또 앞으로 월 1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일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어서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목적사업비가 얼마고, 또 일반운영비라고 해야 하나, 학교운영기 본경비라고 하나, 일반운영비가 얼마고, 시설비, 기타, 이렇게 나뉘어서 알 수 있나요? 목적사업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기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 송진하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전체 추경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죠?

● 송진하 위원

추경예산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자체가 다 목적으로 거의 짜여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교에다 줘서 재원 배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짜게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짜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다 목적비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성질별로 주소된 것은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충 성질별로 뭐 인건비가 얼마, 경상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과장님, 조금만, 제가 좀, 이게 속기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는, 죄송합니다, 관 성명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그것도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학교예산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진하 위원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 송진하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거의가 목적사업비인 것 같아요, 거의가. 그러면 전부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 주는 거고, 학교 교장은,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비로 써야 하는 거고, 뭐 재량으로 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목적을 집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당초에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내려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해에 비해서 목적경비를 저희들이 20여 가지를 풀었습니다. 20여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여 가지를 풀어서 학교에서 직접 계상하라고 했고, 그거 말고도 25%를 지원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5억 5,900만원이 저

희들 설명한 내용에 보면은 각급 학교 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25억 여원을 이번 추경에 더 넣었는데 이것은 순수히 학교 운영경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억 5,952만 3,000원입니다. 이 돈은 아까 설명 올린 바대로 교육부에서 시·도에 자금 배정을 할 때 학교운영비를 얼마를 산출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다 전액 100% 채워주기 위해서 순수히 운영비를 저희들이 25억을 더 넣어 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못 넣어준 부분에 대해서.

● 송진하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비가 25억이면은 700억은 전부 목적사업비구만요, 시설비하고. 723억 이니까, 추경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국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당초예산에 다 짜여져 있기 있기 때문에...

● 송진하 위원

예산에는 다 되어 추경에는 별로, 25억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25억을 순수히 저희들이 재원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많이 학교 교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합운영이죠, 운영 재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통 올 3월 1일부터 학교운영회계제도가 바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거에 목적사업비로 내주던 것을 거의 학교운영비로 재량 사업으로 다 주고 있고, 또 이번에 25억만 추가된 것은 어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의 부족된 것 부분만 되어 있는 거고, 본 예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규모가 6학급 경우는, 물론, 이제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틀리지만 한 8,000 내지 9,000만원, 연간,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억대 정도가 되고, 고등학교는 아마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갑니다, 6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당초예산에 학교운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주로 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송진하 위원

다음에는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정전입금은 여기 7억 8,000여 만원이 2000년도 정산분으로 되어 있네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송진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적기에 받아가지고 적기에 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다 쓰고 이제 해가 넘겨가지고 이것을

주는, 뭔가 우리를 먼저 주고 이것을 자기들이 쓰면 안되는 거요? 어떻게 그래 작년 예산 정산분을 무슨 저 뭐 주듯이 이렇게 주는 문제는 뭔가 돈을 받아 써도 이게 깨 끗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사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잘 받아오는 겁니다.

타 도는 거의 연말에 가서 주거나 뭐 이런 식인데, 저희들 도는 적기에 잘 받아 오는 건데...

● 송진하 위원

그게 여기 기준에 있잖아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뭐에 몇 %는 되어 있지만 언제 언제 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찰로 주는 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지난 해에 도에서 주겠다는 돈 말고, 그 이상으로 결산하고 나서 추가로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해서 정산을 하니까 이 만큼 더 걷혔다 해서 저희들한테 더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난 해의 예산액 보다 더 나온 그런...

● 송진하 위원

미리 받아야 할 것을 지금 받는 게 아니고? 받아야 할 것은 다 받고, 또 끝나고 나서 받는 거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지난 해 다 받고, 정산 끝나고 나서

정산 봐서 더 온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도 제대로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그 전입금이 미리 오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도 지금 결식학생 문제도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결식학생이 1,000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전입금을 좀더 받아서, 우리가 도지사나 군수들한테 가서 애걸복걸 해서 애들 먹이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비법정전입금으로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결식학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도 더 신경써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일본어교사 특별양성과정 연수경비 문제인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도 사실 그 교사의 영어회화 능력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독일어 하고 프랑스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으니까 그것을 단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본어 교사 자격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어 교육은 대학 4년을 해도 이 교단에 서서 문

제가 있는데 독일어나 프랑스 하고 일본어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주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단에 세운다 하는 것은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하는 그런 시책과도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책이 교육부의 시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뭔가 건의도 하고, 물론, 예산이 7천 얼마인가, 얼마밖에 안되지만은 이런 아까운 예산 써가지고 아무 교육적 효과를 못본다면은 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해야 한다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몇 주 간 해가지고 프랑스어 선생님이 일본어를 지도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마음과 같은데, 몇 주 간은 아니에요, 1년 기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1년도 적다는 얘기도 지금..., 그리고 또 직접, 외국에 직접 경험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가지고도 좀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역시 학생들 선택에 대비해서 지금 일본어나 중국 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일본어를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지금 젊은 층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필수가결한 불

가결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기간을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1년 정도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 분들은 그걸로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심층적으로 협조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송진하 위원

글쎄요, 일본어를 대학에서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을 얼마든지 교사채용 할 수 있는 건데...

● 교육국장 이주원

정원관계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 67페이지 교원단체연합회에 관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교원단체연합회에 군 지부장도 하고 했어요, 저도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원단체연합회에서 회관 건립해 가지고 준공식 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물론, 교원노조도 그 사무실 임대료를 줬으니까 똑같은 교원단체니까 교원연합회도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일 교원노동조합은 사무실이 없으니까 임대료를 줘도 없으니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교원단체연합회에 지원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 분들이 현재 있는 회관을 임대를 해가지고 몇 억을 임대료 받고, 또 지원받아 가지고 사무실 차려가지고 했을 때 그 화살은 누가

받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회관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몇억 챙기고, 또 사무실 임대료 도교육청에서 받고, 이랬을 때 사회에서 보는 눈은 어떻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교총으로부터 저희가 임대료는 단체협약 상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그런 의무감 보다는 교총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오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회원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정보 활용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시내 중심부로 옮겨달라, 처음에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저 여기에 단순히 연락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저 조그만 사무실 한 칸이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나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교총과의 연계돼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려면 일정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럼 그쪽에 있는 사무실은 뭐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들의 연수기관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연수기관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쓰느냐고 그랬더니 현재는 일곱, 여덟 번 쓴다고 그러합니다, 선생님들 연수하

는데. 그러나 이게 그것을 정식 연수기관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의 연수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활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무실 임대 관계는 저희는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만일 그런 관계가 발생할 염려를 지금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승진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보과 소관 ICT 관계인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중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시범단지, 3개교 시범단지 해가지고 3억원, 지원센터 11개 시·군에 지원센터 해가지고 또 1억 1,000만원씩 이렇게 주고, 또 교육지원단 해가지고 또 1억 7,000만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ICT 활용, 미래형 모델 학교 운영해 가지고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 해가지고 중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ICT 활용 연구시범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고루 혜택을 주고, 그 교육예산이 시골이나 어디나 똑같이 그 예산이 교육에 유용이 되도록 고루 집행된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즘 정보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 도내 전체 학교에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지

금 이 예산에 보면은 대충 한 학교는 40개교 되는데 시·군교육청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그 학교, 우리는 언제 이런 혜택을 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집행도 조그만치라도 골고루 모든 학교가 도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이 120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 보통교부금으로 56억 7,100만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6억 7,100만원을 인프라 구축, 기반구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40%, 그 다음에 정보활용, 정보교육활용 쪽으로 30%,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15%, 이런 쪽으로 해서 지출을 내려줬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 현재 두 학교를 인적자원부 지정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그 학교 모델을 보면 1억씩 지원을 해서 한 학교라도 완전한 ICT 활용의 체제를 갖춰주자, 이런 식으로 지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모델 학교를 두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은 소규모, 또는 제외되는 학교, 또는 몇 학교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상당수 지금 34

개교로 그 숫자를 늘려서 1학의 학교가 혜택을 보도록 이번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운영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을 망라해서 인접 시·군에 시너지 효과를 올리면서 ICT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청을 만들어라 해서 여기에 3개 교육청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충원 위원님께서도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런 ICT 교육은 행정지시로서, 또는 하향식으로서 되지 않기 때문에 도내 초등학교 교원 350명이 자원해서 동호회 형식도 있고, 저희들이 조직을 요구한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ICT 활용이라고 하면, 뭐 이런 조어가 붙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교단선진화가 된 여러 시청각 기구들, 컴퓨터를 멀티미디어 쪽으로 잘 써라 이런 식인데, 그런 지원단을 이용해서 그 지원단에 소속별로 자료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의 자료는, ICT 쪽은 과거와 같이 유형으로 구체물이나 이런 것 보다는 전부 인터넷 상에 띄우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단양에 있는 분은 단양에서 직접 저희들 컴퓨터로 올려놓고, 영동에 있는 분은 영동에서 올려놓고 하는 식인데, 이것을 그냥 동호회에서 예산없는 사업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통신비나 그분들에게 일당의 수당을 드려서 확실히 이런 것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에듀러브라고 지금 저희들 지원센터에 있는 컴퓨터에만 해도 전년도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한 5,050편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6,000편의 자료를 탑재시켜서 충북 도내 어느 학교든지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좋은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정사업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수나 이런 건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잠깐, 송위원님.

● 송진하 위원

예

● 위원장 조일환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과장님들께서 몇 분이 자리를 뜨셨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고, 지금 빨리 확인하셔서 출석을 하시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 송진하 위원

중요한 정보교육 분야가 너무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하는 그 배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알았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은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 위원장 조일환

체육과장님, 그 소년체전 준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럼 다 계세요?

● 교육국장 이주원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교육국은.

● 위원장 조일환

교육국은 그렇고, 또 관리국은? 감사담당관 계세요? 안계시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뒷편으로 과장님들이 빠져서 앉아 계십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아니 왜 빠져 앉으셔가지고, 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받고 그러죠.

예, 계속하시죠.

● 송진하 위원

다음 15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건데,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계단실, 수준별교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용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연구실이나, 다목적실이나, 수준별교실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단어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목적실은 뒤에 사용

하고, 교과연구실은 뒤에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7차 교육과정 자체가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교육과정 편성을 과거마냥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교사들의 여건이나 아니면 강사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짜기 때문에 그것을 꼭 다목적실에서 무슨 무슨 수업을 하라,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실 그러면 보통 여자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음식 만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머리 속에 딱 들어오는데, 현재 여기 돼 있는 다목적실이나, 교과연구실이나, 특별교실은 활용도가 그렇게 명쾌하게 딱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칭을 우리가 지어줄 때는 다목적실로 지어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간판을 쓰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정하라,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지어주는 것은 보통교실하고 똑같이 지어주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주문은 틀립니다.

주문은 예를 들어 다목적실은 지금 뭐 50평자리도 있고, 45평자리도 있고, 60평자리도 있고, 이렇게 보통교실의 한 두배 정도

되는 교실의 규모로 보고, 교과연구실은 그러면 영어면 영어, 수학선생이면 수학선생님들끼리 그룹으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데 이제 학년별로 앉아서 사무를 보거나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 송진하 위원

그럼 다목적교실은 이제 대형 교실, 중형 교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교과연구실이나 특별교실, 계단실도 교실 그 학교, 학교규모에 따른 T/O에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보통교실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관리실기준같은 것은 과거부터 즉 시설기준령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한 2,3년 전에 그것이 현실에서는 비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그 기준이 없어지고, 이 7차 교육과정 시설은 기준이 국가로부터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도 교육감이 그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시설 여건에 그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과제물의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그 기준에 한 예를 들면 그 연구물의 100%의 어떠한 시설 기준령이 나왔다면 우리 도 실정의 65% 정도를 기준으로 딱 잡아서 거기에 부족되는 학교의 시설을 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이제 교실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느냐, 예산 사정이 어떠한, 아니면 그 학교가 앞으로 학생수가 수용계획상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계단실은 아까 계단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교과연구실이나 특별교실이나 5,600만원 가격이 같더라고, 계단실도. 그러니까 그 계단이 아니지, 하나의 교실이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승강기, 승강기. 계단 그...

● 송진하 위원

그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어느 특정학교가 교실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교실 숫자는 다 있는데 더 지어줬다 이거여, 그래 왜 더 지어줬느냐, 아, 그거는 특별교실여, 그것은 수준별교실로 지어 주는 거, 이렇게 그러한 구실을 달기 위해서 이런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냥 교실 하면 되지, 그 지어주는 것은 똑같이 지어주는 건데 무슨 특별교실, 계단실 이래 해가지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붙이는 것은 교장이 붙여야지, 교장이 붙여야지.

알았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7차 교육과정 시설같은 거는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국고가 일단 50%가 딱 나오

고, 지방비 50% 해서 쳐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게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동안에 과연 다목적실을 몇 실 짓고, 교과연구실을 몇 개를 짓고 하는 그 표준,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목적실이니, 계단실인, 화장실이니 이렇게 지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는 큰 구분은 없습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주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즉 봤을 때 다른 시·군 보다도 그 중심학교, 장학지도 중심학교, 영어시범수업 중심학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ICT 활용 연구 시범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시범지도 운영, 교과교육연구 중심지원, 수업연구발표회 우수교원, 화상학습시스템 구축, 뭐 이렇게 즉 해가지고 특히 청주시교육청에는 이런 것을 몇 개 교씩 지정을 했는데, 글썬요 이게 뭐 중심학교도 필요하고, 이렇게 아주 여러종류의 중심학교가 필요하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중등도 마찬가지로요. 중등도 장학지도시범운영 뭐 영어수업시범 중심학교 해 가지고 몇 개 교씩 즉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정학교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교육청에 216페이지요, 급식소 냉방기인데 여기 보면은 300만원씩 44대를 예산에 세웠는데, 물론 급식소가 큰 데는 큰 것을 놓고, 작은 데는 작은 것을

놓지만 예산 세울 때는 표준으로 해서 했겠죠, 그런데 여기 220페이지에 난방개선은 420만원, 224페이지에는 300만원, 또 250페이지 충주에서는 200만원,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교실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그 교실 규모에 적절한 냉방기의 규격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지고, 사났는데 냉방이 부족하다, 전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곤란하니까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방하고, 냉방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신 건가, 난방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죠?

● 송진하 위원

냉방.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여기 학부모 교육 참가자 급식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5,000원, 1인 5,000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 5,000원 가지고 접대가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단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계상은 못합니다.

급식은 그렇습니다. 접대비라면 1인당 3만원씩 저희들 이렇게 됩니다만은 급식단가는 1인당 5,000원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부조리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끼 그래 5,000원 가지고 참가자들이 학부모가 되든, 지역 분이 되든 5,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급식 단가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부족합니다.

● 송진하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200명 왔는데 400명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한번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좀 보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민간경제에서의 코스트를 국가경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 한달에 급량비가 8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24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은 이것도 한 5천원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000원짜리 어디 가서 식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스트가.

그래서 뭐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급식비로 일단 떨어진 것은 5,000원 정도로 우리가 세워준다 하더라도, 뭐 또 그 학부모님들이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 판공비로 쓴다든가 해서 슬기롭게 우리가 운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원 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뭐요? 723만원.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오수정화조 할 때 원인자부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 법에 얼마 얼마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오수정화조를 만들면 그것을 안내도 되는 데 오수정화조가 안돼 있는 데는 시·군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여기 학교회계전출금, 308, 거기 보면은 영재교육 중심학교 해가지고 1개교가 있는데 충주교육청에요, 영재교육중심학교, 이것은 어떤 영재교육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까 청주 것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 충주 건데요, 대충 지역교육청별로 특색 사업으로 이렇게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주교육청에서 자기들 특색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넣은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충주교육청에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자체 사업으로 넣겠다고...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시설비에 수영장수위조절시설, 수영장수위조절시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천에 그 수영장에 어린이용 수영장에 수위조절판이 낡았답니다. 그래서 수위조절해 주는 그것을 교체하는 거랍니다,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 그 깊이가 공사할 때에는 같은 평행으로 했으면은 깊이가 똑같은데 그 밑에 바닥을 조금 경사지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은 낮은 데서 놀 수 있고, 또중·고등학생들은 조금 깊은 데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낡아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영구시설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판을 깔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놀면 알게도 하고 깊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낡았기 때문에 치우고 영구시설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옥천교육청의 학생 통학비를 1,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돈 가지면 차 사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 가지면? 차를 사주면은 학생들 편하고 좋은데 어떻게 해서 차 살 돈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통학비를 지원을 해 주나.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 할 때에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지원해 달라면 버스를 지원해 주고, 또 학생들이 아주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될 때, 또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 이런 곳은 굳이, 사실 버스값은 싸지만은 거기 운전기사도 따라야 되고 해서 운임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시내버스 통행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낫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내버스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어느 학교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이게 옥천의 죽향초, 청산초, 청성초, 대성초, 네 개교입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뭐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 다 사주고 거기는 그래 뭐 무슨...

● 위원장 조일환

죽향하고 대성...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죽향초의 국원리, 소정리, 석호리, 그거 김광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버스가 안들어가는 부분인데요...

● 간사 김광수

위원장님, 그것 좀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일환

예

● 간사 김광수

저도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죽향초등학교 관내 같아요. 그런데 그 통·폐합 할 적에, 군동초등학교 통·폐합 할 적에 분교로 안 하고 그냥 죽향초등학교로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학부모들이 교통비를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얘기대로 시내버스가 거기 있고, 여기 유성복계장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또 이렇게 해서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내버스가 그 전같이 안다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육천교육청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통학버스로 대체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또 오지예요, 오지고 해서 죽향학교까지 오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아주 저도 봐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그것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학교 통학버스는 기사들이 학생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서로

하는데, 사실 공용버스를 이용하면 장날 같은 날은 뭐 콩나물 같이 타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학생들 안전, 학생들 편리하게,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버스편도 줄어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반영이 되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일환

예, 답변을 하시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죽향초는 아마 보은 나들이가 되는 것 같고, 청산초는 뭐 보은서 영동 나가는 도로편, 뭐 너무 잘 아실텐데, 실질적으로 저희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은 하루에 잘 해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자유스럽게 하교하고 등교하는 데는 오히려 시내버스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유고가 있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 시설과에 대한 질의가 꽤 있습

니다. 그래 그것은 국장님이 대신 하시고, 실무자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광수 전 의장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버스를 말이에요,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버스가 편리하지 진짜 다니다가도 안다니고 뭐 노조도 있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 좀...

● **간사 김광수**

그 얘기는 제가 엇그저께 들은 얘기에요. 죽향초등학교 관내 석탄리 그쪽으로 아마 그런 요즘 통학버스를 요구하는 그런 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이미 먼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고 해서 저는 질문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몇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시설과장님이 그 시설현황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올해는 많이, 4억 6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소년체전이라는 학생들 체육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점,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송진하 교육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육청 관내에 냉방기만, 급식소의 냉방기만 초등학교에 43대, 중학교에 10대, 여기 청주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서 53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이제

그 급식수에 따라서 아마 용량이 크고 작은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우리 전 도적으로 볼 적에 다른 시·군에도 냉방기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충북교육에서 이 교육행정의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 단가입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다 더 많이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에어컨이라든가 냉방기 말고도 컴퓨터라든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모든 예산 중에서 정보화기기보수구입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단가입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몰라서, 잘 몰라서 좀 물어보는 건데, 정보화과장님, ICT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그 용어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CT가 정보라는 인포네이션(Informational), 또 통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Technology), 이 세 단어의 첫 약자입니다만, 사실 그 어원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것을 두 개의 조어로 정보통신하면 정보기술

이 두가지 용어가 합쳐서 I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에서는 C를 빼고 IT 또 이렇게 합니다. 정보기술이 되겠습니다, 밖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넣어서 그것이 의사소통입니다만 통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두절미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ICT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교실현장을 선진화 해서 학습의 효과를 누리자 해서 그 매체를 설치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컴퓨터를 통한 주변기기를 합쳐서 하나의 멀티미디어 학습을 하는 이러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멀티미디어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자, 그거보다 조금 (청불)로 올라가는 하이퍼미디어 자료를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다 ICT라는 파격적인 용어가 붙은 것이 제 자신도 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선생님들이 알게 하려면, 정보기술을 학습에 많이 활용하자, 이렇게 해도 좋고, 또 통신, 정보통신을 이용한 학습자료를 매체로 활용해서 수업을 잘 해 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참 얘기가 됐는데 간단히 말씀을 합니다.

● 간사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항별설명서에,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11쪽에 볼 것 같으면, 세입·세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입에 487억 작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487억 4,991만 7,000원, 이것이 이번에 추경한 데 들어갔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들어갔습니다.

● 간사 김광수

들어갔으면은, 723억 4,272만원에서 원칙은 빠지는 액수만이 이번에 교부가 된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이월 된 것은 순수하게 이월금이니까, 723억에서 487억을 뺀 것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시죠? 보편적으로 봐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723억 4,200 중에 487억은 자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지, 작년도 이월금에서 들어간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추가로 온 것입니다.

● 간사 김광수

거기에서 또 세출분야를 보면은, 예비비가, 예비비가 16억 1,340만원이 금년에 예비비가 거기 서있던 말이에요. 기존 서 있는 247억 1,600만원에다가 이것을 보태니까 263억 2,9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16억 1,3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토탈 263억 2,994만 7,000원이 예비비가 되는 것입니다.

● 간사 김광수

이 예비비를 16억을 해오는 데는 이거 무슨 기준치가 있나요?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서 적당히 남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예비비로 한 건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액수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0.5%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워야 할 곳에 돈을 못 넣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다음에 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껴두는 건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러니까 47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늘려서 지금 추경에다가 한 거마냥...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또 이제 하다가 남겨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편성한 데 보면 지역교육청에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크고 작고 한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 교육장님 재량사업비라고 명목은 붙이지 않고, 보통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교장선생님들한테 100% 다 줘야 되는데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 간사 김광수

그럼 아까 얘기한 25억 쪼개서 재량사업비가 그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직접 교장선생님들한테 갈 예산의 5% 정도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좀 유보를 해 놔다가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지침에 돼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도교육청에도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상당량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적에 작년도 넘어온 세계잉여금 470억 중에는 역시 금년 추경에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초·중학교, 일반시설비는 이제 작년도 사용 예산 잔액 가지고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하고, 일반적으로 학교를 대단위로 개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뭐 많이 복구를 해서 돈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역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 예산하고 별도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완금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라고 해도 예비비에 넣어 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전체 예산의 0.1%를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억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들어가 있는 260여억 원은 어떤 사업비가 됐든 다음 추경 때 명목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당시기 때문에 여기에 재량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 목적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용도로 쓰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그 넘어온 것은 그래도 교육감님 의사의 80% 이상 의사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목적지정사업 외에는 보통 교부금이라는 것은 집행기관 장의 의도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간사 김광수

보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목적사업비야 딱딱 어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으니까 말이지.

● 위원장 조일환

위원님,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좀 해 왔는데...

● 간사 김광수

그럼 같이 말씀을 드리시죠.

● 위원장 조일환

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해서...

그게 예비비라는 것은 뭔가 예측 못하는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 연도에 쓸 가능성을

보고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많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거 안했다는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에 넘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예비비 때문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예비비를 우리가 0.1%만 남기고 전부 사업비에 쓰면은 예산이 가장 경직되게 가고, 예산 대로만 사업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시피 뭐 앞으로 우기도 닥쳐올 것이고, 언제 어떠한 또 재난이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이 알다시피 970억이라는 기채를 지금 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과연 0.1%만 남겨놓고 전부 다 우리가 사업비에 서있을 경우에 추가 재원이 필요했을 때 그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자금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래서 어차피 또 저희들이 예비비에 많은 금액을 남겼다 하더라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부채가 이렇게 많고 또 앞으로 6개월이라는 1년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0.1%만 남겨놓고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옳은가, 고민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조일환

아니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0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이 금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앞으로 6개월 남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금년은 금년 대로 예비비가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이렇게 470억이나 되는 돈이 거의 6개월이 사장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해서 아껴쓰고 작년에 예비비로 해서 남았다, 4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470억, 500억에 가까운 돈이라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이자 따먹기 해서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가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5월 달 추경까지 왜 남겨두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 돈으로 생각해 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돈입니다. 470억이라는 우리 8,000억 예산에서 얼마입니까. 상당히,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도 IMF 때 예비비를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

을...,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들었는데 이미 지났지 않냐 이 말이에요, 2000년도는. 그래 금년도에 쓸 예산으로 세계잉여금이 넘어왔다면은 지금까지 왜 내버려 뒀요. 7차 교육과정에 예산할 적마다 깎으려고 그러면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하고 더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어째서 475억원을 6개월 가까이 왜 묶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까? 국장님, 어떠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이월금을 당초 예산에 명쾌하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집어넣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5월 지금까지 올 것이 아니라 연초에 바로 추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 위원장 조일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게 하고 28쪽에 보면 세입부문에 말이죠, 4억 7,943만 3,000원 중에 교육마당 21 구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계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이 1,436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교육마당 21 구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싶어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마당 21은 실질적으로 교육전문 잡지

인데 이것은 편집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모든 원고를 다 주고, 다만 책을 발행만 인쇄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교육마당 21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책이 아니고 교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 간사 김광수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이제 국고로 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부를 해 달라, 해가지고 온 금액입니다.

● 간사 김광수

이대로 왔다가 이대로 배부만 해 주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교육부에서 돈 주고 너희 이 책 사 바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자면 교육마당을 발행하는 그 회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래 판권 자체는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시판을 하게 되면은 보통 1,200원 내지 1,500원에 하는데 거의 이거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전부 선생님들한테만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이 솔직한 얘기가 이제 구독을 하시지

않고 안 사니까.

● 간사 김광수

왜 다른 책도 많고 한대 왜 하필이면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다 보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국고로다 사서 주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러니까 그 누구 특정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용은 그럴거라고 그게, 그게 사실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부 입장으로 보면 교육 홍보도 되고 솔직한 얘기가, 또 선생님들이 교육전문직들을 안 보니까 뭐 개인 돈 주고 사느니 국가에서 사서 좀 선생님들한테 주어서 자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러시겠죠.

이거 51쪽에 보시면은 그 유네스코 국제대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거지요? 초등.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 전국적인 행사가 충북지부에서 금년에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지원금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충북지부 어디서 어떻게 이거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행사가.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는데 전국 행사를 해가지고 7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예, 이번에 초등교육과는 예산이 1억 남짓밖에 못 받았어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받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안한 겁니다.

● 간사 김광수

어제 일을 많이 하는 데를 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 적게 주는가 왜 1억밖에 어떻게 예산이 추경에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참 신문에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저 그 기술 부전공자격연수라고 하는 거 아까 지방지에도 잠깐 봤어요.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등이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간사 김광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개편이되면서 종래에 기술과, 가정과 이 두 과가 통합된 기술·가정 과목이 두 과목이 통합돼서 하나의 과목이 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가정이라는.

● **간사 김광수**

기술이라고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아니 종래의 기술하고 종래의 가정 과목이 통합된 기술·가정, 그런 과목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생긴 거에 관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또는 실제로 교과를 운영하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종래에 있는 기술과와 가정과 선생님들이 자기의 설 땅을 없애고 기술·가정으로 다시 나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상당한, 아까도 부전공 관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통합되는 별도의 또 하나의 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술 선생님들은 가정과 관련된 그 부분만 연수를 받고 또 가정과 전공하신 분들은 기술과와 관련된 그 부분만 연수를 받으면은 실제로 나는 가정과이지만은 기술 부분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이런 차원 그 기술 부전공 연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는 지난 해에 가정과 선생님들이 115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때 신청하실 때에는 기술·가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에서 기술·가정을 희망하는 교사에게는 기술·가정 그 자격증을 주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정과 선생님이 기술 자격증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시간 수를 더 연수를 받아 가지

고 기술 자격증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저희 도내에 115분 중에서 9분은 기술·가정으로 부전공 자격을 받아 가지고 나갔고 나머지 106명 9분 빠지니까 106분이 기술 부전공 자격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연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럼 여자선생님이 많이 있나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모두 여선생님들입니다. 가정과 선생님들입니다.

● **간사 김광수**

예, 오늘 그게 신문에 오늘 보도가 나 있어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간사 김광수**

그러니까 그 예산에도 보면은 63쪽에 그 60명, 사학에 또 18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몇 명 이렇게 죽 나와 있기 때문에.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간사 김광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나의 구재책으로서 하는 것이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가정과 선생님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 **간사 김광수**

남기 때문에 이래서 인제 하는 것이라고 보겠지요. 그리고 64쪽에 보면은 맨 밑에

고등학교 학력고사 문제지 인쇄 해서 본 예산에 이게 없었던 것이 요번에 인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이 고등학교 학력고사 본 것이 금년도에 와서 이게 하계끝 되어 있던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를 1년에 두번 치를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사설기관 모의고사를 일체 시행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해부터 금년 계획이 미리 발표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할 적에는 시·도별로 자체 출제를 하거나 학교 단위의 출제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경험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충북 단독으로 시행을 할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 대학은 전국 단위의 경쟁이 되는데, 시·도 자체의 출제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연구를 해서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출제해서 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도별로 이를 한번, 일단 폐지가 됐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종래의 모의고사인 명칭을 고3학력고사로 해서...

● **간사 김광수**

매년 하는 거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고3학력고사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시·도별 자체로 할 때 학생들에게 충분히 진학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도별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시·도교육청 관계관들까지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시기가 지나서 지난 연말에 가서나 그게 협의가 됐습니다, 타결을 봐서 하라고.

● **간사 김광수**

그래 그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래나 저래나 말이지요, 애들에게 그 모의고사를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꼭 제한할 게 뭐 있어요 시·도에 연합해서 전부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시·도가 연합해서 하는 것은 시·도별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출제를.

● **간사 김광수**

아니 글썄, 시·도별로 출제를 해서 이렇게 포시험을 보이는 건데, 그러면 뭐 정부에서 굳이 그걸 교육부에서 제한을 해서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인제 그 사설기관 모의고사를 폐지하는 것은 사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공교육을 활성화하자, 말씀드리기 좀 못합니다만은 사설학원에 다

나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사설기관 모의고사 결과 나온 분석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교안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모의고사 형식의 학력고사를 보면은 대학진학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만드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사설기관 자료에 많이 의뢰하기 때문에 뭐 사교육에 의뢰한다, 그런 차원으로...

● 간사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일이 여기 예산에 없는 것 입니다만은 사교육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얼마 정도 이게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지난번에 그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월 뭐 학생 1인당 평균 해 가지고요, 1년에 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월...

● 간사 김광수

7만원인가 얼마 하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얼마 해 가지고 1년에 96만, 86만원인가 9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런데 그전에 이게 뭇한 것이 그 전에는 과외를 할 것 같으면은 과외망국이라고 야단을 하더니 그게 과외는 없어지고서 사교

육비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지금 사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과외가 종전에 통제되던 것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 간사 김광수

허용이 되어서 그걸 다 하는거지요 인제.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 간사 김광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저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만.

● 간사 김광수

예, 예.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요거는 그럼 사교육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전국 통계를 내는 건 아니죠? 전에는 가령 뭐 인제 종로나 대성에서 보면은 전국 13만명 학생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 순위가 몇 순위 정도 그게 나왔었지요? 그전 시험에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나왔습니다.

● 이상일 위원

지금 여기 이 시험에는 그런 게 없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그 프로그램은 종래의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와 같은 똑같은 분석자료가 나옵니다.

그래 지난 4월 말에 시행한 것도 전국단위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는 성적표에 전국 인문계열 또는 실업·자연계열, 예·체능계열해서 전국단위의 자기 순위가 모두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단위 응시자 전체가...

● 이상일 위원

일체 그 사교육 기관에서 만든 거는 학교에서는 그거를 활용할 수 없죠? 지금.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 지난번에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측에다가 동문회에서 문제지를 사서 줄테니 보는 것도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아마 그걸 시험을 못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것까지도 굳이 막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지, 그 저 학생들 부담된다고 못하게 하는데 동문회에서 사 주겠다 그거야, 경비 일체 부담해 주겠다, 선생님들은 단지 나와서 감독만 해 주시고 감독수당도 다 주겠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실갱이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일체 사설기관에서 하는건 안되는 걸로 알

고 있으면 됩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저희가 교육부 지침을 그렇게 이해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학교 단위로 하게 되면은 여기 저기 경쟁이 돼서 과열될까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이것을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저도 이거 준비를 한게 있는데 사교육 기관에 그 문제지를 제한하는 거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거요 교육부에서.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말씀하세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작년까지는 지금 아까 우리 중등과장 남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충수업을 3학년 허용을 했고, 또 사설기관 시험도 2회 3학년은 허용을 했었는데, 금년부터가 이게 교육부의 연차적인 계획으로 금년에는 완전히 보충수업 사설문제 시험으로 모의고사는 안보는 걸로 금지로 돼 있습니다, 금년. 금지로 돼 있는데, 그 주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공교육, 아까 중등교육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사설기관에다 맡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공교육을 맡고 있는데, 공교육을 좀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사설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쪽으로, 우리가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

고 한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연구할 일이고, 이제 1년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사실은 공교육을 살리는 쪽에 그런 생각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일환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결론이 났어요. 김정숙 의원이, 왜, 공교육이 사설교육기관에서 내는 문제지 수준을 못 따라 간다 이거지요, 수준이.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학원에 가서 한다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충주 모 지역은 선생님들이 안하니까 학부모가 감독하고 학부모가 학교만 빌려주시오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학생들이, 부모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다섯 번을 보는 그 우리 연합의 출제 문제가 그야말로 공교육이 사설기간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도 앞섰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교육 수요자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것을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이들한테 충분히 해서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되고 말여, 이러한 역기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교육을 이제는 내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쪽이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간사 김광수

말씀 다 하셨어요

● 위원장 조일환

예

● 송진하 부의장

이거 당초 예산에 학력고사비를 반영 안한 것은 학력고사 보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 교육국장 이주원

당초 예산 작년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다 해오던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경비를 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근데 금년에, 금년에 각 도에서...

● 송진하 부의장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한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예, 원래 계획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자체가 미리부터 계획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각자 구상들을 하다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도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비관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시험을 본 것은 사실 우리가 그때는 문제지는 그냥 얻어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경비 없이. 그래서 이 예산에서 사실 그건 빠져 있는 겁니다, 경비도 없이 썼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 간사 김광수

어디 제주도에서 얻어다 보였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서울.

● **간사 김광수**

서울에서요?

● **교육국장 이주원**

서울서 하는 걸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그때 13개 시·도가 다 참여했습니다, 13개 시·도가, 16개 중에서 시·도가 참여해서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서울시에서는 문제집 값은 안받고 그 OMR카드라든지 그 뒷처리 하는 그런 비용만 저희들이 자부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국에서 그 사학교육기관에 사 기관에 모의고사, 그때는 개인부담 했지만 우리가 기왕에 해 주는 거 학생들의 경비를 대줘서 하는 쪽으로 다 각 시·도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경비를 대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드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일환**

국장님 말이요, 지금 우리 연합으로 한 것은 몇번이나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 두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두 번 했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위원장 조일환**

두 번하고 예산은 늦게 올라오는거 아니 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교육국장 이주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 **위원장 조일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건 벌써 작년엔 지시하고 예산이 됐으면 이거 추경에 기다릴게 뭐 있어요, 집행을 하셔서, 지금 두 번해서 되겠습니까. 벌써 6월이 다 됐는데 그죠.

● **교육국장 위원**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알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저 기획관리과장님 그 예산 여기 보면은 성립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성립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성립전은 지금 이렇게 추경을 올려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성립 됐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이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 **간사 김광수**

후 의결을 받아도 된다, 이거구먼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지요. 그 지방재정법 3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목적지정이 내려온 것은 이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성립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간사 김광수

쓰고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추경에 올려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간사 김광수

그렇게 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립전 사용한 것을 일부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요번에는 그게 많으네요 성립전이라 하는 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예, 그렇게하고 76쪽을 보면은 과학실업 교육에 성교육이라고 나와요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해서 외래강사, 외래강사를 쓰는 건데 이게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이것은 교사 중심의 체계적인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교원 연수를 교육부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 간사 김광수

교사 중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 간사 김광수

외래강사라고 했는데?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이제 그 예산 중에서 교육부에서 이게 나온 예산입니다. 특별강사를 쓸 수 있고 또 우리 성교육 전달교육을 받은 교사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대로.

● 간사 김광수

그 외래강사를 써서 이분들이 교사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이제 아직 특별강사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명단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 간사 김광수

여기 7만원씩 해서 여덟 명 돼 있는데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건 예산이 딱 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아주 지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담교원들이 연수를 받고 오면은 또 두 개 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8개 반에는 특별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 간사 김광수

예, 성교육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93쪽을 보시면 맨 밑에 부담금에서 전산보조원임용 아파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약11,000원씩해서 253명에 5개월 그럼 하루에 이 사람 인건비가 어떻게 1만1,000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일요일을 빼는 것입니까, 이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거는 건강보험료입니다.

● 간사 김광수

건강보험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한달에 저희들이 1만1,000원씩 넣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 간사 김광수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월, 월 1만1,000원씩

● 간사 김광수

건강보험료 월 1만1,000원씩...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의료보험료

● 간사 김광수

전산보조원들에게 주는 거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공단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의료보험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간사 김광수

5개월 쓰는 데도 이걸 줘야 돼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의료보험법에 보시면은요, 일용잡급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국민들 건강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일용잡급을 몇 번 쓰더라도 일단 넣어줘야 됩니다. 일정한 그 규모에 이상되는 데는.

● 간사 김광수

5개월밖에 안쓰는데도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보통 1,2개월 쓰더라도 돈을 넣어줘야 돼요. 그 사람 건강 때문에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간사 김광수

그러면 가족의 말하자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도...

● 간사 김광수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도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자기의 소득이 있으니까.

● 간사 김광수

여기 채용 되시면은 별도로 인제 이렇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래 그렇게 있어서, 5개월 되는 것도 이걸 지급하나 싶어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어때요, 금년도는 그 말하자면 체전에 나가는 학생이라든가 또 나가지 않는 학생들이라든가, 체육활동비가 어때요? 누구 계장님 계신가? 평생교육체육과.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체육특기생들이 아닌 일반학생들은 아까 총괄 예산 범위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아까 4억여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은, 지원받은 돈은 학생들 선수, 선수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은 그거하고 하등...

● 간사 김광수

관계가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주원

관계가 없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 111쪽에 보면은 조리보조원 퇴직금이 라고 돼 있는데, 조리보조원 퇴직금이 네 사람이....

● 교육국장 이주원

아까 전산 그때 그럼 같은 맥락에서...

● 간사 김광수

예?

● 교육국장 이주원

아까 전산보조원이나 같은 맥락이나 똑같은 생각으로 되는 것들입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지금 내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몇 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줄 수 있나 이거지요.

● 교육국장 이주원

1년만 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간사 김광수

그럼 1년만 넘으면 퇴직금을 줄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63만원 해서 15명이 4년이 됐단 말이지, 그럼 6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이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한달.

● 간사 김광수

한달치, 한달치를 주는데 4년이기 때문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균 4년치를 잡은 거죠.

● 간사 김광수

4년치를 주는 거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그러니까 4년 근무한 사람들 4년치로 보면 돼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1년 근무를 하면 1달치를 퇴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4년 근무한 사람은 4개월치를 주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4개월치를 주는 거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게하고 본청에 총무과 소관에 121페이지 바닥보수 하는 거요, 아스콘을 다 퍼는 건가요? 이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전체를?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하기는 그 지금 콘크리트 한 것이 말하자면 망가지고 해서 피기는 퍼야 되겠어요. 전체를 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게하고 132쪽을 보면은 기획관리과 소관인데 거기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원 교직원단체업무담당자 해서 6만원씩 한 사람 12개월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132쪽에 초등학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원단체업무를 취급하는데 교사 하나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 간사 김광수

전교조인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교원단체니까 다 해당됩니다.

● 간사 김광수

전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교총이고, 전교조고 다 거기...

● 간사 김광수

다 있는데 여기 전교조하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거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교사가 하나 더 와서 그 파견교사한테 주는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간사 김광수

수당을 주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월 6만원씩 해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수당입니다. 예. 그 저 교원단체업무담당자들한테 월6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수당이. 그래서 한 명이 더 왔기 때문에 그렇게...

● 간사 김광수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돼요? 이런 분들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8명이랍니다.

● 간사 김광수

8명이 돼요, 그러니까 인제 전교조 단체, 한국 교총단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

는...

● 간사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요번에 추경은 뭐 시설비를 빼면은 별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설과에만 126억이 요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요, 그 어디서 보니까 그 담장관계 여기 담장 예산이 각 지역교육청 같은 데서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학교 개방화라고 해서 담장을 지금 허물고 있는데 허물고 이렇게 하는 또는 시·도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담장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봤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학교 기존 개념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현재 생울타리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도시지역에는 벽돌쪽으로 돼 있는 학교가 대다수가 있고 현재 교육부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를 너무 불투명하게 해서 담벼락을 미관상 좀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또 내용도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거주를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울타리를 없앤다는 것이 현재 우리 정서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다시피 얼마전에 또 울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에 괴한이 또 낮에 수업 중에 침입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타리를 기존에 있던, 담장이 좀

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위험시설이 아니면 열악한 경우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개축을.

그 다음에 인제 그 아직까지는 도심지에서 울타리를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낮게, 또 투명하게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 저 옛날마냥 높으담 하게 그렇게 싸니까 형무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요 가급적이면 알게 해서 투명하게 이런 담장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예, 153쪽에 보시면 맨위에 지붕방수, 화장실 보수 했는데, 그전에 제가 지붕방수도 여러차례 지적한 일이 있어요, 그전에. 이 건 시설과에서 집을 질 적에 철저하게 감독을 제대로만 잘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시설하는 건축물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화장실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건가요? 이게. 15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의림공고에 2실하고 충북정보산업고등학교에 8, 옥천상고에 5, 이렇게 해서 15실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이게 보수로 돼 있단 말이요, 신설이 아니고 보수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간사 김광수

전에 있던 그 재래식 화장실을 고치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지금 화장실이 시설이 연약해서 오래 돼 가지고 도저히 그 악취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하는데 솔직한 말씀씀 드리는데 제가 이거는 현장에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장에 가 봤던 우리 시설기획계장님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상태를 물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 간사 김광수

예, 그러시죠. 이게 저 시설과에다 속제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시설과 여기 저 3번에 지붕방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3,1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 지붕방수를 하는 건가, 이 학교 지붕방수를 하는데 몇 년도에 건립을 한 건가, 이것 좀 알아서 다음에 연락을 주시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거는 진천농고에 지붕방수인데...

● 간사 김광수

진천농고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사실상 방수가 우리가 참 어렵습니

다. 보통 한 10년 좀 넘으면은 상당히 누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방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지붕이 방수가 안될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 상당히 금방 낡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 간사 김광수

바로 낡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방수시설은 방지 해 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예, 요거 진천농고라고 하면은 몇 년도에 이거 교실을 지은 건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예, 아까 저 이상일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154쪽에 난방개선 했는데, 420만원씩 해가지고 49개 교실을 하는거란 말이지요. 1개 교실에 420만원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보통 심야전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심야전기를 하는데 25평이나 30평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은 요즈음 400여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연해서 한 몇 개 교실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몇 개교에 하는 건가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 난방시설을 대부분의 건물 용도에 따라서 대개 저희들이 하는데 대개는 1개 건축물이 통합되어 있는 데는 전 교실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49.5실을 이제 실당 420만원씩 계산을 해서 난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글썄요, 그런데 요것을 한칸 한칸 할려면 420만원 들어갈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간사 김광수

예, 그러나 한칸 한칸 하지 않고 세칸을 같이 한다든가 할 적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요 한칸하는 데는 420만원 들어갑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요거는 어차피 인제 저희들이 그 입찰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것마냥 실질적으로 소요액보다는 대개 단가, 코스트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요렇게 됐는데요 요건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잠깐 요거는 집행과정에서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조일환

반드시 이것은 입찰을 하는 거지요, 입찰을 하지요?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기획담당 이학신입니다.

이 420만원을 선정하게된 경로는요, 교실 한 칸에 온풍기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온풍기가 8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2대씩이 들어가는 거구요, 거기에 인제 심야난방 배관에 따른 전기공사, 이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난방 공사는 거개가 다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게 실제 집행하고 남은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온풍기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입찰을 봐 가지고 인건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계장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가정집에 30평 기준으로 보일러, 온수기 포함해서 시공비 다 포함해서 약 400만원 귀뚜라미 보일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애매하게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공고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경쟁 입찰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 위원장 조일환

(청불)에도 또 절감하게 들어가니까...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보고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올립니다.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우리 본청은 우리 예산서도 보면은 양도 얼마 안되고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비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검토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서해수련원 이것이 한건으로 봐서 많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까도 저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은 계수조정할 때 또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하고 인제 174쪽에 단재교육연수원 소관인데 174쪽에 영어마을합숙이라고 있어요 영어마을합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거 누가 좀 말씀 좀...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아까 이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영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종전에 심화연수, 중등과정연수 그런 과정을 금년에는 원어민을 활용해서 저희 도내에 일곱 분의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는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주·야를 연수기간 동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 회화능력을 신장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있었던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대화를 통해서 토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회화능력 신장과 지도능력 신장을 기르는 것 입니다.

● 간사 김광수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만 3,750원씩 해서 80명이 1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간사 김광수

그래 10일 가지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이제 그 80명을 한 반에 원어민교사가 한 사람이 지도할 수 있는 인원 40명 단위로 두 번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40명을하게 되면은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영어 선생님들 네 분 내지 다섯 분이 한 그룹이 됩니다. 그런 정도면은 이미 영어과 교사 자격

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현재 교실에서 활용하는 그걸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연수 기간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 도에서 상설기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상설 연수원에 상설 그 기구로 해 놓은 다면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 간사 김광수

예, 그런데 여기요, 급량비가 3만 3,750원이 급량비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고 그런 분들.

● 간사 김광수

그런데 80명이 10일 먹는 것이 2,700만원이 나왔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간사 김광수

그럼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루에...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그 산출근거는...

● 간사 김광수

하루에 80명이 먹는데 3만 3,750원이 든다는 얘긴가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산상 정해져 있고...

● 간사 김광수

그러면 1인당 세끼를 먹는 건데 몇 끼를 먹는 건지 모르지만은...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그 전 기간 동안에.

● 간사 김광수

그런데 하루에 80명이 먹는데 3만 3,750원 밖에 안 들어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1인당, 1인당입니다, 1인당 들어가는 액수가.

● 간사 김광수

글쎄 1인당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간사 김광수

1인당 그래요? 1인당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한끼가 1만 1,000 얼마씩 되는 건데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식사 그 기간동안에, 열흘간의 기간동안에 1인당 들어가는 식대가 되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이게 당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3만 3,750원씩 80명이 하루 들어가는거로 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3만 3,750원이 80명이 하루 먹는 것이 3만 3,750원여.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아 이거는 그 연수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합숙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같이 계산한 내용입니다.

● **간사 김광수**

이 산출 근거 좀...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거를 다시 확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입니다.

● **간사 김광수**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거 별도 산출 기초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이해를 못하겠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그 영어마을 관계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 **간사 김광수**

알고 있어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연수를 저희가 인제 그쪽으로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 **간사 김광수**

예산은 인제 단재교육원 쪽에서 올렸죠?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쪽에서 올렸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런데 이거 글썽 3만 3,750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하루 분인가, 이게 1인당 하루 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 **간사 김광수**

이거로 봐서는 1인당 하루 분인데 그러면 한끼에 1만1,000 얼마씩 나왔단 말이지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지역교육청 소관은 뭐 여기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분도 없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한데,

진천교육청을 한번 봐 주시죠. 진천교육청을 봐주시면은 초동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 진천교육청에 요번에 추경내려 온 것이 7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유치원 것이 1,160만원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데 다른 시·군의 유치원은 이 사업이 많고 이런데 여기 진천만이 비단 아무런 사업이 없고 난방개선비 요거만 1,16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전부 보기에는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부 보면은 유치원 예산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 만이 어떻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 간사 김광수

예

● 기획관리과장

진천은 기정예산이 한 1억 6,000 몇백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왜 다른 데는 없어요?

● 기획관리과장

그래서 금회에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변경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진천은. 그래서 액수가 적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건 아닐테지요. 다른 교육청 봐도 다른 교육청은 전부가 있는데 여기 진천만이 이렇단 말이지요. 그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음성도 보시면 900여 만원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많고 그러면은 그 액수가 올라가는데 진천은 그 변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용 변경이 없어서.

● 간사 김광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대충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도 전입금이 총 얼마가 되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난해요?

● 간사 김광수

예, 2000년도에 요번에 여기 들어온 거까지 합하면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법정전입금 한 60억 정도 됩니다.

● 간사 김광수

60억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간사 김광수

요게 그 세액에 몇 %로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금년에 3.6%, 지난해까지 2.6%입니다, 지방세의 2.6%.

● 간사 김광수

2.6%에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1% 올랐습니다. 금년에 3.6%입니다.

● 간사 김광수

3.6%요, 금년도에는 더 많겠네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금년도엔 더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교육세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많습니다.

● 간사 김광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쯤 지났습니다. 다 질의가 끝나고 제가 조금 질의할 내용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 20분 안 걸리겠나 싶은데 6시는 안되는데 개별적으로

용변 보실 분은 보시고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 잠시 정회를 하실 건가...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이 얼마쯤 하시겠어요.

● 위원장 조일환

글쎄 말이요 길어야 한 20분되고...

● 간사 김광수

우리 속기사 때문에 잠깐 쉬어야 되요.

● 위원장 조일환

속기사 때문에, 그럼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어요, 5분만.

(17시 30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 위원장 조일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심의 할 적마다 제가 욕을 많이 먹는줄 알아요. 이번에도 그 저보고 위원장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셨을 때 전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01년도 정기 우리가 예산을 다뤘을 때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그 모욕적인 그러한 심의에 대한 평가는 저는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며칠동안 검토를 하시면서 사심없이 저는 의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하 신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소이초등학교에 심의를 잘못해, 이게 국장님들이나 관계관님들 계십니까만은 어째서 잘못해 그래서 저는 그런 과

거의 그런 전이적인 의식이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오늘은 또 어떠한 모의 있더라도 제 소신껏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집행청 간부나 직원들이 모이셨으니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손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상당한 의견을 모으시고 이것은 과연 집행청 위주의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9월 5일 날 추경을 갑자기 상정한 것도 본회의 보다 집행청의 형편 때문에 그랬고, 소이초등학교 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손의장님께서 여러위원님들에 의견을 존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대단히 여기계신 여러분께 제가 이것을 꼭, 다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매번 교육위원회 건이 나오면은, 집행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쪽의 기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집행청하고 그런 관계야 됩니까. 또 설령 집행청에서 그런 오해가 있으면은 위원회나 직접 본인이나 손 의장님을 뵈고, 아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도 확인 안하고 여기서 대단히 부끄러운 게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에는 생략을 합니다. 무리한 예산심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솔직히 우리 이야기 해 봅시다. 대장초등학교나 소이초등학교는 과거에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게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정론입니다. 보셨잖아요. 한 쪽은 늘고 있고 냇가 하나 건너서의 면소재지도 아니고 과거의 면소재지였습니다만은 그 졸업생들이 많은 전통 있

는 학교는 줄고, 우리가 수입억씩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적인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또 매년 줄어서 100명 미만의 학교에다가 22,3 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옳으나, 아 그렇다면은 이번에 유보하고 다음 추경에 올려서 몇 달 늦다 뿐이지 이것이 좋지 않느냐, 만장일치로 한 거지 그게 조일환이 혼자 한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번 예산도 어떠한 사회의 지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답지 않게 이러한 언론에 정보라 할까 이런 언행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자제해야 되겠다. 그건 그렇게 당초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도 부덕하고 저도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이런 물의를 빚은 것에 저도 심심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저희 교육위원회나 충북교육을 위해서 남은 임기 열심히 할 그런 각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번에 행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지금 시설과장님이 안오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 교실 등의 중요 시설의 설치근거, 이것을 제가 서면답변 요청했어요 그 죄송합니다만 이게 동문서답이 됐어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과거엔 학교시설기준령이 대통령령이 있었지요, 시설계장님,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폐지됐죠.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의 재량에 맡겨

졌죠, 말씀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재량에 맡겨졌으면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스탠다드 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300명을 수용하는 교실을, 교육기관을 설치 하려면 교실은 몇개 다목적은 몇 개, 화장실은... 그게 있죠, 예? 그런 것을 상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주셨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어제 6학급인데도 왜 예산이 배가 달라지느냐 이 말이며, 저는 이번에도 추경에서 상당히 제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나와서 다행이지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조일환

이것을 뭐 진작 주지, 고생을 덜 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보느라고 교육청 별로 따져보고, 본청 거를 또 지역청도 안배를 해 보고, 이게 있으니까 한 눈으로 다와.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심의하는 사람한테 좀 이런 쪽으로 자료를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나중에 주시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불편합니다. 좀 부탁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기준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저 음성 학부형한테 또 혼날지 몰라요, 음성이 추경에도 또 제일 많아,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 말이야. 많아도 상당히 많아, 왜 많



은가를 봤더니 어디 중학교인가 6억 얼마인가 그 다목적 강당이 뭐 있습니다, 그걸 빼도 많아, 무슨일이냐 이말이야. 거기만 학교시설이나 이것이 전부다 낡았던 이야기나 이 지역 국회의원 처럼 없어서 그렇지, 어째서 매년 이러냐 이거여 매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어디가 지금 몇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도 예산이나 이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제가 늘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다목적 하면 어이, 특별교부금 어디가 제일이야, 화장실 어디가 제일이지, 제일 급해, 방수 어디야 하고 이것이 돼 있다, 이거여.

계장님, 그거 돼 있습니까, 우선 순위가 돼 있습니까?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교육청에서 요구를 받아서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요구를 받아서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이 없다 이거여, 뭐하는 겁니까, 본청이란 곳이 뭐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거 요새 전산 다 되어 있는데 연도별 이거 이거 하나 못해 놓니까. 제가 책망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받아서 이렇게 했다, 어디는 받은 것에

50% 주고, 어디는 70%주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항의할 때는 계장님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현지를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객관성이 없다. 지금 이거부터 우리 충북교육청이 바뀌나가야 교육가족으로부터, 업자로부터 저는 신뢰도를 얻는다고 봅니다.

제가 관리국장님께 먼저 엇그제 될 하나 갔다 드렸어요. 서울시교육청에 인사계획서가 있어요. 2001년에 교장은 어떻게 옮기고, 교사는 어떻게 옮기고, 장학사는 어떻게 뽑고, 2001년에 할 땐 2000년 10월이면 다 인재를 해서 쥐요 인재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평할 것도 없어,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다 해서 줍니다. 투명·공정 아니겠습니까, 투명·공정. 아 우리 예산만 내면 우리 소이초등학교 이번에 뭐가 되어 우선순위에 다섯 번째여,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여. 이게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과하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미운놈 안 주고, 고운놈 잘 주고 교육청에 자주 지역청에 드나드는 사람 뭐 주고,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김계장이 재산 담당할 때도 토지에 대한 것은 전산화 한번 해 봐라, 그럴 때 우리 정말로 한번 못하겠습니까, 전산화 안됩니까. 두드리면 특나오지요 지금, 어떤시대입니까. ICT 우리가 교

육현장 하는데 4억이면 뭐해, 4억. 저는 참 정말로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만집니다만은 저보고 프로그램 하라고 해도 조금은 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 의지가 문제다. 의지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앞에 깔고 제가 정말로 제가 과장님께, 과장님께 나 무슨 사업하나 달라는 적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제가 과장님 계시면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제가 답답한 거는 행정 중에도 제일, 지금 제가 나쁜 얘기지만, 이충원위원님은 아주 듣기 좋게 말씀을 잘 해 저는 나쁜 소릴 잘해요, 저는 직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과가 제일 일도 많고 제일 얻어맞기 쉬운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사무가 미흡한 것 같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데란 말이죠. 근거 확실히 대고 아까 가덕학교 얘기 할 때도 턱 턱 대고 이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물품 구입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사업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가 입찰을 하더라도 국가에서도 공공근로를 해서 없는 사람 나와서 대충 일해도 하루에 3만원, 왜 줘니까. 국가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지역에 사업자를 제가 두둔이 아닙니다, 완전히 봉쇄하고 순전히 예산절감 차원으로 가면은 도고 교육청이고 상당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못하는게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단가입찰을 해서 최저의 예산을 절감 하더라도 지역, 지역업체가 어떻하면 최소한의, 그 소득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고 봐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으면은 좀 저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서해수련원 얘기를 다시 안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결해 드리더라도 만약에 언론이나 도의회에서 이게 본, 여기서 저걸 할 거냐, 도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듣게 된다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한 저희 교육위원회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기사업승인이 된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 2대 때 여기 김계장님 계십니다. 확보되고 교육부에서 100 얼마 준다고 확답을 했으니까 의결만 하시오 한 겁니다. 전제가 있었습니다, 전제가. 그때도 위원님들도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며. 그래서 교육감님이 확실하게 이것은 아주 교육부장관한테 확답을 받은 거다, 의결만 해 나라,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전의 위원님들이 발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부터가 사실은 참 포대기부터 준비한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제와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육시설을 잘 만들자 하는 뜻이니까, 우리 집행청에서도 교육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살

리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 그 부지지정 11페이지를 보면은 한 18억쯤 그게 책정이 돼 있어요. 난 무슨 부지가 어떻게 해서 18억, 부지정지 몇 개 학교인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장락초라 제천지역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천지역에 신설학교에 세울 부지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거에 대한 정지비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글쎄 그러니까 정지비가 18억이 들어갑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거 부지선정을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다른 데는 지금 현재 토지정리구획정리가

되거나 이래 가지고 부지를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천지방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택지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띠기가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락초등학교 위치를 제가 부지비가 하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25억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6개월만에 처음 한번 출장을 가서 현지를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산인데 위치는 중심부에 있습니다만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의 장동을 전부 까 내려 가지고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아니되는 아주 열악한 그런 위치인데 위치상으로는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야 될 형편이고, 또 터가 그 근방에 살만한 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부득이 저희들이 직접 시설과 장하고 토목기사하고 같이 가 가지고 가서 계산기로 두드려 가며 예산을 한번 다시 짜보고 짜보고 해봐서 한 5억을 지금 깎아 가지고 18억인데, 인제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의아했고, 과연 18억이라는 돈이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 봤더니 현실이 그 위치적으로나 그 학교를 짓고자 하는 예정지는 산으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구렁을 메꿔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로와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시내 청주시내보다 코스트가 높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학교를 좀 연기해서라도 좀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지역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장락초등학교 위치가 뭐 도리가 없이 좀 괜찮은 장소고, 또 초등학교기 때문에 이게 또 학생들이 통학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그 현지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일환

저걸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아서 그런데, 이건 지번하고 평수하고 요 것을 주세요. 이것 어떻게 보면 18억이라는 돈을 맡여 5천평을 산다 하더라도 정지까만 얼마여 이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돼 있는 등본을 떼십시오. 그래서...

● 간사 김광수

아직 매입은 안했지요, 대금만 줬다고 했던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대금을 줬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10%...

● 위원장 조일환

글쎄 올라갔는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직 안줬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안줬지요? 아직.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리고 계약을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제가 이 애길 왜 하나 하면은, 어디 학교도 무리하게 청주에 모 사람이 소유한 것을 산을 깎고 해서 집도 북향이 되고 그냥 운동장이 전부 다 바워니까, 암반이니까, 나무 하나 못 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간 제 개인적으로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아까 ICT 미래형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이 학교에는 정보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기종을 뭘 바꾸는 겁니까, 내용이.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좀 간단히 부탁 올립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현재 시설이 기반확충이 돼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ICT활용교실이라고 해서 열린교실 차원이 아니라 학교에 특별실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

는 방을 새로 꾸미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용을 몰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 서버 하나에도 저희들은 가는데 9,000만원짜리가 있고, 5,000만원짜리가 있고 어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에 70%가 들고, 그 외에 연구개발비, 연수, 인쇄 및 운영비, 이런 것을 책정해서 그 액수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이따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여쭙면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 위원장 조일환

그 다음에 학생 중식 극빈자가 나왔는데, 제가 언젠가 행정질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주시장은 상금으로 5억이 나온 것을 특별히 충주시지역 결식아동 기금으로 아주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아주 그 이자로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려를 좀 하고 각 시·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저 급식담당 계십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예,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거기 하셨어요? 충주시청에.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예, 하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청을 빌려서 지금...

● 위원장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라도, 의회라도 가서 먼저번에 제가 행정질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야지 오는 것만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좀 안하셨죠 아직.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왜, 교육감이 시장 만나서 했어요.

● 위원장 조일환

국장님 그렇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런 데가 없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야전기 나왔는데요, 다 목적교실하고 강당은 뭐 큰 건 아닙니다. 실시할 때 반드시 정말 단가입찰 하듯이 일관성 있게 이걸 저 뭍니까. 그 뭐예요 그 계.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입찰.

● 위원장 조일환

입찰해야 됩니다. 우리 충북교육 이것만은 어찌됐든, 왜 이따 지지한 것 때문에 왜

육을 먹느냐 이거여. 그래서 제가 이 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 이거 저 시설비나 이게 모자라서 한 거 사건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학지원은 특히 순위를 매기셔야 되요 항간에 어떻게 소문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프로테이지 다 내요, 40몇%가 뭐 어디에만 갔다, 이렇게 예산을 내요, 왜 그렇니까. 사학지원비 여기도 나왔는데 제가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학일수록 공립보다 못지 않게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비, 이런 것을 순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저기 부전공 아까 말씀하신 독어가 일어로 가는데 그 희망을 교사 때문에 일어로 가는거예요, 학생들이 희망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2외국어 희망이 어디가 제일 무슨 과목이 제일 많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앞으로 정확한 조사는 이제 본인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야 내년엔 2학년 때부터 선택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학년이 안된 학생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사해보면은 일어·중국어 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조일환

제가 듣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관련 해서가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중국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어가 여론에 앞섭니다. 이걸 제가 근거 있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를 해 달

라는데 학생들이 중국어를 해달라는, 중국어 도내 11명 뿐이지요, 중국어가. 지금 일본 상대해서 못산다는 거 다들 알아요. 중국 상대해 먹고 사는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학생중심으로 희망을 받았는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니 지금 1학년 내년 에 2학년 야, 니들 내년에 제2외국어 어느 거 하면 좋겠어, 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다른 건 제가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청에 그 불균형된 예산집행, 이번에 추경이 약 한 700억 이렇게 됩니다만은 본예산 못지 않게 시설비가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모 교육청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정말로 이런 일이 많아요 요전에도 그래 음성 소이초등학교는 22억, 23억 저거고, 그래 산외초등학교는 왜 12억이나 여기는 왜 12실이고 여기는 22실여 아 거기는 7차 그런 모호한 답, 어디는 7차교육 안합니까. 그래놓고 그 의결 삭감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걸 위원회에다가 나쁜 말로 흘랑 뒤집어 씌어요. 저는 앞으로 이 시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거여, 제발. 이렇게 우선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하실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은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조일환

장시간동안 수고하시고 여기서 말씀드리  
는 거는 정말 공적인 입장이니까, 개인적으  
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 하시고 혹  
(청불) 있더라도 많이 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위원님들 저 현장방문  
협의를 해서 하실까요, 어떻게.

● 이기수 위원

간담회에서 하죠.

● 위원장 조일환

간담회에서, 그러면 내일 현장방문이 있  
으면은 우리가 그 내일 일정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에 10시로 예정  
이 돼 있었죠 원래가.

예, 10시로 되어 있는데 10시니까 혹 뭐  
가 있으면은 바로 사전에 통보 올리겠습니  
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2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김광수,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 별 책 부 록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본회의(별책 1)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본회의(별책 2)
- ▶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본회의 (별책 3)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30일 (수요일) 14시 12분

議事日程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2분 개회)

### ● 위원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그리고 소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어제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청과의 일문일답 형식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게 있거나, 또 우리 집행청에서도 답변이 미흡했다거나, 또 위원회 에 심사

하는 과정에서 뭔가 바람이 있다거나 하면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집행청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 위원장 조일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협의결과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에 조

[제128회-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정기로 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단재교육원 영어마을 합숙비 기록상 잘못된 2,236만원, 그리고 청주교육청의 초·중학교 급식소 냉방기구입비 1억 5,900만원, 총 1억 8,1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여 세입·세출 각각 8,845억 6,666만 7,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그야말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시고, 또 솔직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애쓰신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김광수,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6. .

위원장           조 일 환





(별첨 1)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2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 5. 28. (월) 15:00~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1. 5. 29. (화) 10:3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001. 5. 30. (수) 10:00~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현장방문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현장방문 - 가덕중 - 학교시설



(별첨 2)

## 서 면 답 변 서 (이기수 위원)

도서관의 장서기준 확보률(2000. 12말 현재)

기준 279,000권, 보유 215,124권(확보률 77%), 부족 63,876권

장서 소화시설 및 장서 보관시설 확보대책(현황)

○ 장서 소화시설

중앙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로 각 층별 소화전 2개소, 방수구 1개소 및 자동확산소화기 4개, 20kg 1개, 3.3kg 30개를 적정 배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 장서보관시설 확보방안

연간1만여권이 증가하는 장서를 수용하기 위해 서고1(232.65㎡),2실(44.5㎡)을 확보하고 또한 모빌서가를 설치하여 각 자료실에서 이용가치가 상실되고 파손된 자료 및 귀중한 자료의 관리 효율성과 공간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도난방지 시설 설치여부

99년, 2000년 2개년에 걸쳐 42,672천원을 투자하여 종합자료실 및 아동실에 도서분실방지기 2set, 출입통제기 2대, 감응제거기 3대, 감응제거재생기 2대, 감응태이프 105,120매를 설치하였음

전자 도서관으로의 전환 계획은?

전자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쇄물 형태로 소장 제공하는 정보에서 도서관 환경변화(전자출판물, 인터넷보급 등)로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한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도서관운영 형태와 병행해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기관통합검색, 원부서비스, 맞춤정보서비스, 기관상호대차, 인터넷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점차로 디지털 도서관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

도서선정위원회의 운영사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장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도서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을 기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도서관은 직원 중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각 실의 책임사서 8명을 중심으로 도서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음



